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104 1983년 4월 1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April 11, 1983

한국일보 토론토

Ap. 1 1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81년1월1일이전 入國 不法체류자 永住權주자"

미국 불법체류자에 희소식…하원 이민소위,이민법개정안통과

(워싱턴-AP, UPI)미하원이민관계소위원회는 6일 1981년1월1일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사항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7대1의 압도적 표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이민및 난민소위원회(위원장-로마노·마촐리의원)는 원안의 불법체류자사면2단계안을 수정, 단일안으로 통과시켰다.

종전의 불법체류자사면안은 1977년1월1일 이전 입국자에게 영주권을 그리고 1980년1월1일이전 입국자에게 임시거주권을 부여하는 2단계였으나 금번 소위원회에서는 이안을 단일화하여 내용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날 소위원회는 2단계 사면안을 단일화하자는 안에 대하여 5대3으로 우선 통과를 보고난 후 기준일자를 1981년1월1일이전(1980년12월31일까지 입국자)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일괄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민법개정안의 제안자인 마촐리위원장은 하원법사위가 오는 8월이전에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금년회기내 이민법개정안본회의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이 84년미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많은 안건심의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는 불법체류자사면안과 고용주처벌안을 삭제하자는 샘·홀의원(민주당-텍사스)과 빌·맥콜럼의원(공화당-플로리다)의 수정안을 각각 부결시켰다.

이날 이민소위원회는 개정법안통과를 전제로 한1984년부터 86년까지의 이민관계추가예산안 4억7천5백90만달러를 통과시켰는데 레이건행정부는 이기간동안 매년 5억3천9백20만달러의 예산안을 책정하고 있다.

이민법개정안은 지난해 상원에서는 80대17로 통과를 보았으나 하원은 회기말회의에서 3백여개 수정안으로 통과를 보지못해 폐기되어 금년회기에 재상정된 것이다.

우주산책등 임무수행 성공적

우주왕복선 찰린저호 9일 귀환

(휴스턴)콜롬비아호에 이어, 미국의 두번째 우주왕복선인 찰린저호가 케이프캐너베럴에서 4일 발사된이후 순조로운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비행의 목적은 고장난 태양탐사위성회수를 위한 예비시험, 소규모제트추진장치를 발사, 비정상궤도에 있는 통신위성을 제자리로 옮기는 예비연습, 우주인의 우주산책등으로 비행은 9일까지 5일간 예정이다.

7일 하오 찰린저호의 승무원인 도날드·페터슨과 의사인 스토리·무스그래이보씨는 3시간30분간의 우주산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들은 약$200만 상당의 비용을 들여만든 우주복의 성능과 우주공간에서의 환경 적응능력을 테스트했다.

한편 미우주항공국(NASA)은 지난 5일간 찰린저호가 대단히 정확한 작동을 해왔으나, 앞으로도 많은연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1차로 무스그레이브씨가 우주산책을 하는 광경은 TV를 통해 방송되었다.

그는 밖이 "대단히 청명하다"고 외쳤다. 1분뒤 페터슨씨도 산책에 나섰다.

한편 백악관의 레이건대통령은 우주인들과의 통화에서 "우주탐험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게됐다"고 치하하고, "당신들이 대단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찰린저호는 5일동안 지상 176마일의 우주궤도를 80차례 선회, 총3백20만Km를 항해하고 9일 하오 캘리포니아 에드워드공군기지에 귀환한다.

◆찰린저호의 승무원인 도날드 패터슨씨가 우주산책을 나서기 직전 손잡이를 붙잡고 카메라조작을 하고 있다.

교통 티켓은 제때 처리해야

「온」주 최고법원,"위헌 아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경찰로부터 받은 티켓을 가진 온타리오주민의 기대가 무너졌다.

7일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은 온타리오주의 교통위반에 관한 「단순처리법규」가 헌법상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온타리오주 최고법원의 판결은 모터사이클 운전자인 윌리엄·카슨(30)씨가 헤드라잇을 켜지않고 가다 경찰에 적발, $28의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티켓에 적혀있는 주교통법규(Provincial Offences Act)의 15일내 재판청구내용이 부당하며, 재판청구는 주법원당국이 해야한다고 주장, 항소한데 대해 내린 것이다.

80년도에 도입된 「단순처리법규」에 따르면 교통위반혐의로 경찰로 부터 티켓을 받은 사람은 유죄를 인정, 벌금을 내던지 벌금을 내지않으려면 15일이내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통고해야하며 벌금도 안내고, 통고도 안할 경우는 자동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도록 돼있다.

한편 지난 5일 모리스·찰스판사는 재판없이 유죄판결을 받은데 불복, 항소한 3명의 운전자들에 온타리오주의 단순처리 교통법규는 경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주어 인권헌장에 위배된다고 판시, 티켓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 희망을 안겨 주었었다.

김옥길 전 이대총장

유니온신학교서 공로메달

(뉴욕7일=연합)미국을 방문중인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박사가 7일 유니온신학교로 부터 한국기독교전파와 교육에 대한 공로로 메달을 수여받았다고.

유니온신학교 도날드·쉬라이버로총장은 메달수여식에서 김박사의 여성교육업적과 탁월한 지도역량, 기독교 선교에 대한 공로를 치하했다.

김옥길박사는 평남출신으로 1961-1979까지 19년간 이대총장에 재임했으며, 79-80년에는 문교부장관으로 재직했다.

노년회 $100 기탁

미스·코리아대회 지원

한국노년회(회장 조영호)는 7일 토론토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있는 미스·코리아대회를 성원하는 의미에서 100달러를 주최측에 기탁했다.

이날 본사를 방문한 한덕창 노년회부회장은, "지원금은 지난5일 개최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것"이라고 말했다.

5일 한인회관내에 있는 노년회사무실에서 거행된 노년회 정기이사회는 또한 6,25참전용사회와 한인회관이전모금위원회도 적극지원키로 결정했다.

5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노년회는 척사대회, 회원관광, 뱅글라대쉬 불우민을 위한 바자회, 노인과 젊은이와의 대화, 무료노인영어반등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한·카 경제위 참석자 발표

총 58명…한국19명, 캐나다39명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토론토에서 열리는 한·카 경제협력회의(본지3월25일자 1면기사참조)의 한국및 캐나다측 참석자 명단이 밝혀졌다.

한국측 대표로는 한·카경제협력위 한국측 의장 구평회(호남정유사장)씨를 비롯한 18개 회사 단체의 대표 19명, 캐나다측에서는 32개 회사 단체대표 39명이 참석, 총 참석인원은 58명이다.

지난 81년 9월 서울에서 있는 총회이후 최대규모가 될 이번 총회의 참석명단의 다음과 같다.

▲구평회(호남정유사장)
▲최승나(캐나다외환은행장)
▲이원순(조흥은행 토론토 사무소장)
▲김충세(대우조선사이사)
▲최종악(한국수출입은행이사)
▲양율식(외국무역 대리점연합회의장)
▲이진열(삼화산업이사)
▲신성근(Poscon 이사)
▲이춘식(토론토 무역관장)
▲성기주(국제상사 토론토지사장)
▲김찬범(한국산업 연합회이사)
▲김태우(한국산업 연합회이사)
▲이영세(풍산금속 사장)
▲강경은(반도상사 이사)
▲김명환(한국전력 연료부장)
▲주광수(현대그룹 이사)
▲정봉택(서울낙농협회 전무)
▲박승순(한국합판공업 연합회장)
▲설희순(삼성주식회사 주장)
▲안도근(제련회사 부장)
▲홍승표(삼양사 전무)
▲윤원철(금성사 부장)
▲신준성(호남정유 비서실장)

◁금주의 행사▷

-1983년 4월11일(월)~17일(일)-

▲4월11일(월)하오6시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입학시험
곳 : 본교(754 Indian Rd. Tor.)
연락처 : 전화762-1495, 745-7370

▲4월10일(일)-14일(목)한·카경제인협력위 연례회의
곳 : 포·시즌스호텔(21 Avenue Rd. Tor.)

▲4월14일(목)-17일(일)하오7시30분 충현교회창립기념부흥회
곳 : 충현교회(240 Manor Rd. Tor.)

▲4월15일(금)하오7시 해병전우회정기총회
곳 : 클링턴하우스(전화535-9541)

▲4월16일(토)12시-7시 판아메리칸 오픈태권도대회
곳 : 에토비콕올림피움(590 Rathburn Rd.)
연락처 : 전화247-7577

▲4월16일(토)7시 공군보라매회 파티
곳 : 남강(920 Yonge St.)
연락처 : 전화531-6430, 961-2961, 251-9587, 630-2400

▲4월16일(토)1시 칼빈신학교 이사회
곳 : 칼빈신학교(252 Bloor St. W.)
연락처 : 전화233-2266, 248-4130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푸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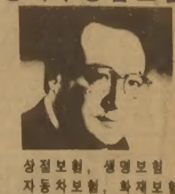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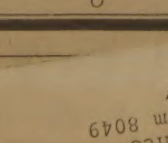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R 622-5147

E.J. AUTO BODY

□ 수리후 일체 책임보증(1년간 보증수리서 제공)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제공.
□ 수리중 Car를 무료대여.
104 Osler St. #2-3호
(B)766-3122 (R)439-6548
대표 이영두

한국식품점의 대명사 삼복식품
금주의 스페샬
쌀 20KG $12.95
조기 1BOX $39.95
(쌀·라면을 제외한 50불이상 쇼핑할때에 한함)
소면 1BOX $9.90
▶ 시내 어디서나 30분이면 오실수 있고 무료주차할 수 있읍니다.
▶ 주7일 영업합니다.



2437 FINCH AVE. W. WILLOWDALE, ONT.
☎ 743-8270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88년 올림픽개최 계기
한국風物 대대적 소개
헤럴드 익재미너등 美紙, "전통文化 간직"

한국의 풍물을 소개하는 신문 잡지등 미매스컴의 한국에 관한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 LA헤럴드익재미너지는 여행판톱기사로 「한국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대비해 단장에 한창」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관광을 2페이지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는 서울을 비롯한 한국주요관광지에는 86년과 88년에 몰려올 여행자들을 위해 세워지고 있는 고급호텔과 지하철등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볼만한 관광지로는 경복궁과 비원은 동양고유의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서울시내에서 롯데백화점, 동대문시장등이 쇼핑하기에 좋다고 추천했으며 제주도의 특이한 풍경과 민속촌에 간직된 한국전통생활 방식등이 매우 볼만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외국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예의가 밝으며 한국은 아직도 현대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샌프란시스코의 일간지 샌프란시스코선메이의 재미너앤드크로니클의 여행담당컬럼니스트 리처드·파오리씨는 지난 3월13일자보도에 한국은 미국인기TV프로그램이었던 「매쉬」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의 고전문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국가이며 제주도 같은 명지는 「동양의 하와이」라는 이름을 얻고 있다고 찬양했다.

캐나다「킨더가든」 100주년
첫 유치원은 1883년 현 이튼·센터에서

금년은 캐나다의 유치원(Kindegarten)이 생긴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캐나다최초의 유치원은 100년전 토론토 공립학교의 수석감독관인 제임스·L·휴즈씨의 제창에 의해 현 이튼센타 자리인 루이자·스트릿(Louisa St.)에 설립된 것으로 첫번째의 선생은 미국 센트루이스로 부터온 아다마리인(Ada Marean)이었다.

그후 이 유치원은 80명의 아동들에 7명의 선생들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현재 메트로·토론토에는 약24,000여명의 유치원생이 있다.

세계최초의 유치원은 1839년 독일의 후레드릭·후로벨씨의 착안으로 시작되었고, 어원도 독일어"어린이 동산(Children's Garden)"인 킨더가든에서 유래되었다.

1920년대초기에 유치원 선생을 지낸 미뮬렌드여사(82세)는 그때를 회상하며, "자신의 유치원생시절(1900년)과 선생시절(20년대)이 엇그제 같다"고 말했다.

토론토 교육위원회의 마가렛·디스여사는 "어린이 조기교육에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며, 적령기전 학교갈 준비를 제대로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7일밤 7시 토론토의 카사로마(Casa Loma)에서는 전국각지에서 온 유치원관계자와, 초기 선생님을 역임했던 이들이 함께 모여 100주년기념축하 파티를 가졌다.

이자리에서는 초기 유치원의 역사를 기록한 사진전도 곁들여 졌다.

◆1900년초 토론토 킨더가든의 공부모습

폭행치사범에 21개월형
피해자 측근, 경미처벌에 분개

(브램톤)술집앞에서 공연히 붙은 시비로 1명을 폭행치사케한 가해자가 21개월형을 언도받자, 피해자의 가족과 측근들이 경미한 판결에 분개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딸의 약혼자를 잃은 미시사가의 레스·크리스프씨는, "살인을 하고도 21개월뒤에는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니 법이 무심하다"고 말하고, 처벌이 보다 강화될 것을 촉구했다.

7일 브램톤 온타리오주지방법원의 존·스미스판사는 조셉·미글리아(26)군을 살해한 리차드·스티븐즈(28)군에 21개월 징역, 3년 근신형을 선고했다.

살해된 미글리아군은 지난 6월12일 친구 2명과 함께 스트릿츠빌의 퀸·스트릿의 술집에서 나오다 젊은 패거리들과 맞부딪쳐 시비가 붙어 머리를 발길로 채인후 미시사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숨졌다.

그는 지난10월 웬디·크리스프양과 결혼 예정이었다.

범인 스티븐즈는 법정에서 미글리아군의 머리를 발로 찼음을 시인, 유죄로 인정했었다.

존·스미스판사는 판결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낚시가족을 부른다"
상금도 다양한 각종 대회 안내

낚시인구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낚시가 스포츠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도 각종 낚시대회가 줄을 이어 있고 이 대회들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대회규정도 다채롭다.

가정단위의 소규모대회에서 많은 현상금이 걸린 대규모대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회가 열린다.

83년도에 있을 중요대회를 보면,

◉제8회 연례 Salmon Derby 4월16일~5월15일

(센·케더린게임과 낚시협회 주관, 장소: 온타리오호수)

상금 총액 $22,000과 특정일을 통해 행하는 표시고기(tagged fish) 낚시에 $25,000. 참가비 1인당 $10, 가정당 $15. 연락처: P.O.Box 295 St.Catherine, Ont. L2R 6T7

◉제7회 연례사니아 Salmon Derby: 4월22일~5월11일

(블루워터낚시회 주관, 장소: 센클레어강(St.Clair River)과 휴론호수)

상금: 총액 $20,000. 참가비: 1인당 $10. $15.

연락처: Sarnia and District Chamber of Commerce, 224 North Vidal St. Sarnia, Ont. N7T 5Y3

◉제3회 조지안 트라이앵글 Trout Derby: 4월30일~5월14일

(장소: 조지안 베이)

상금: 총액 $20,000. 참가비: 1인당 $10, 가족당 $20.

연락처: Georgian Triangle Tourist Association 601 First St. Collingwood, Ont. L9Y 4C2

주: 4.20전에 신청하고 4.30전에 낚시인 등록을 해야함.

◉Perch Derby: 4월19일~5월8일

(OCC-Orillia Chamber of Commerce 주관)

장소: 심코(Simcoe 호수), 상금총액: $60,000.

참가비: 1인당 $5, 일찍 예약하면 $3.50.

연락처: OCC, Sundial Dr. Orilliar, Ont. L3V 6H3

전화: (705)-326-4424
(705)-325-2111

한편 라벳스(Labatt's) 회사가 후원하는 각종 토나멘트가 상금 $10만 이상을 걸고 실시된다. 참가비용은 극소하다.

◉Canada-U.S. 월아이(Walleye) 토나멘트: 5월28일~29일

장소: 밥케이전(Bobcaygeon)

연락처: 베티·맥도날드(Betty Mcdonald)씨 (705)-738-2202

◉노스베이 Nipissing Pickerel 토나멘트: 6월11일~12일

연락처: North Bay Elks Lodge #25 (705)-474-1491

◉로얄리스트 Smallmouth Bass 토나멘트: 6월25일~26일

장소: 킹스턴.

연락처: 에드·팔머(Ed Palmer)씨 (013) 389-8013

◉라이스 호수 Bass 토나멘트: 7월9일~10일

연락처: P.O.Box 1329 Peterboro, Ont. Tom Taylor씨 앞으로.

◉Can-Am팀 Salmon 토나멘트: 8월27일~28일

장소: 수·산·마리(Saut Ste. Marie)

연락처: 짐·티버트(Jim Thibert)씨 (705) 949-9379

◉센트 후란시스호수 Pickerel 토나멘트: 9월3일~4일

장소: 랭카스터(Lancaster)

연락처: 이언 매킨토쉬(Ian Maclintosh)
P.O. Box 10, South Lancaster, Ont. L0C 2C0 (613) 347-3084

◉제4회 슈퍼리어 호수 Trout Hunt: 6월4일~5일

장소: 선더·베이

연락처: 죠지·오스번(George Osburn)씨
R.R. 3 Thunder Bay, Ont. P7B 5E4

◉이리호수 Bass Derby: 6월25일

장소: Long Point Bay

상금: $9,000

연락처: (519)842-6471

◉타운엔드 칸추리 마린(Marine) Bass Hunt: 6월25일~7월3일

연락처: 119 Dover Rd. Dunneville, Ont. N1A 1Z5 (416) 774-6885

◉Summer Salmon Search: 7월1일~7월24일

(이리호수 Salmon Club 주관)

상금: 총액 $30,000

참가비: 성인 $10, 아동 $4.

연락처: S.S.S. Box 720 St. St. Thomas, Ont. N5P 4C3 (519) 455-4430이나 Collegiate Sports Store로 하면된다.

캐나다 인구 2500만명 육박
83년1월현재 통계국 발표

(오타와)
캐나다 총인구수는 83년1월말 현재 24,739,400명인것으로 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발표했다.

캐나다인구는 작년도에 비해 약 24만명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둔화했다고 통계국이 밝혔다.

인구증가 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해외이주였다.

한편 서부의 4개주의 인구는 타주보다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대서양 연안주는 사망율보다 약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주별로는 온타리오주가 가장 인구수가 많고, 그다음은 퀘백, 브리티쉬, 콜럼비아, 알버타의 순이다.

각주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작년도 인구수)

▲뉴파운드랜드 575,900(570,500)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 123,600(123,000)
▲노바·스코시아 : 857,100(850,000)
▲뉴브론스윅 : 706,300(698,600)
▲퀘백 : 6,477,800(6,455,700)
▲온타리오 : 8,753,600(8,664,700)
▲마니토바 : 1,042,500(1,029,900)
▲사스카추안 : 991,000(977,400)
▲알버타 : 2,340,600(2,287,500)
▲브리티쉬·콜럼비아 : 2,800,500(2,771,300)
▲유콘 : 23,200(23,800)
▲노스웨스트테리토리 : 47,400(46,500)

아내 셋둔 남성 덜컥
이혼없이 세번씩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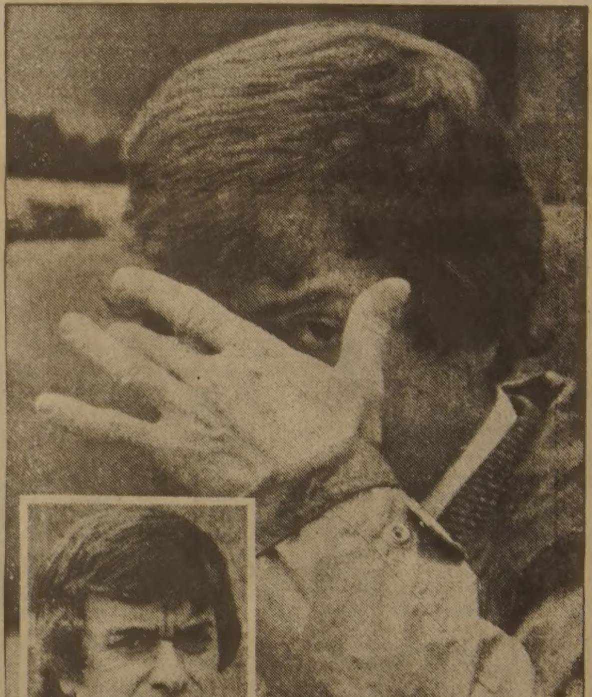
귀찮은 이혼 절차를 무시한채 세번씩 결혼한 사람이 법정에서 중혼및 문서위조의 두가지 혐의를 시인했다.

킹즈웃·로드의 스탠리·월터·프리이어(38)씨는 67년 캐더린·모드·윌슨씨와 장로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뒤, 73년 별거했다.

다시 75년 빌·조이·엔친과 유대교의식 결혼을한 프라이어씨는 다시 지난 82년 4월 장로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해더·마가렛·베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캐나다법에서 중혼은 최고 5년형까지 받을수 있다.

프라이어씨는 또 은행관계 서류에서 첫번째 부인의 사인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시인했다.



◆이혼절차를 무시하고 세번씩 결혼식을 올렸던 사나이 프라이어씨가 7일 법정에서 중혼죄를 시인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헤로인 ③
<208>

『아악-』

두봉은 문에 몸을 부딪치면서 비명을 질렀다.

일인은 미친듯이 칼을 휘둘렀다. 동판을 찌른 칼끝이 이번에는 그의 어깨를 가격했다. 칼끝이 뼈에 부딪쳐 격렬한 통증을 몰고왔다. 두봉은 손잡이를 비틀었다. 문이 열렸다. 목덜미에 칼끝이 박혔다. 두봉은 몸부림치면서 계단으로 몸을 굴렸다.

『빨리 가방 가져와!』

일인이 여자에게 소리쳤다.

여자가 양손에 가방을 하나씩 들고 달려나왔다. 그가 가방을 하나 받아들었다. 그리고 앞장 서서 옥상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들은 옥상을 가로 질러 비상계단쪽으로 달려갔다.

비상계단은 숲쪽으로 나있었다.

두봉은 맨아래층까지 기어 내려갔다. 온몸이 시뻘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계단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어느새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어쩔줄 모르며 구경만하고있었다.

『빨리 병원에 데려갑시다!』

『경찰에 알려!』

이런 저런 말소리가 가물 가물 들려왔다.

『안돼… 안돼…』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얼마후 그는 편안한 자세로 시멘트 바닥에 길게 드러누웠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죽었나?』

『아직 죽지않았어. 맥이 뛰고있어.』

朴 男 그림

칼에 찔려 혼수상태에 빠진 두봉은…

밤도 깊었기때문에 택시도없었다. 병원까지 가려면 한참을 나가야했다. 말만 무성하다뿐이지 피투성이 몸을 앞장서서 운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용달차가 한대있었다. 용달차 운전사가 용기를내어 차를 갖다댔다. 두봉은 짐짝처럼 차위에 실렸다. 그날밤따라 혹한이 엄습해 몹시도 추웠다.

용달차 운전사는 급한대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그를 데리고갔다. 30분쯤지나 경찰이 나타났다. 두명의 파출소 순경들이었다.

『위독합니까?』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환자를 들여다 보았다.

『네, 매우 위험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읍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젊은 의사는 필요한 조치를 이미 끝내놓고 있었다.

순경들은 본서에 지원을 요청했다. 다시 반시간쯤 지나자 앰블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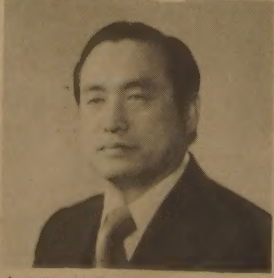
두봉은 종합병원으로 운반되었다. 즉시 수혈이 시작되고, 당직의사는 상처를 꿰매나갔다.

그러나 환자는 쉽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날이 밝아왔지만 그때까지도 그는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경찰은 그의 소지품을 조사해 보았지만 신원을 밝힐만한 것이 없었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484-6110(B), 492-7472(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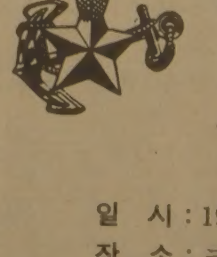
심령부흥성회



(서울 시온장로교회 목사)

□강사·김형태목사
□시일·4월21일(목)부터 24일(주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7시30분(목·금·토·주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5시30분
□장소: 한인오순절장로교회당
754 INDIAN RD. TOR. ONT.
□연락전화·245-4770, 651-4621, 762-1495

해병대 창설 34주년
기념식및 제5회 정기총회



우리들은 대한의 바다의 용사
모함을 떠나면 배수진뿐인 상륙전!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3군에 앞장서는 해병이 34년전 한국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된 찬란한 해병대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념식과 정기총회를 갖고저 하오니 해병전우회원및 가족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일 시: 1983년 4월15일(금) 오후7시
장 소: 크링톤하우스(693 BLOOR ST. W.)
회 비: $20
연락처: 최장복 591-6859 김명정 652-0370
송기선 270-0876

해병전우회 회장 남 상 현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과 캐나다가 만나는 가정

한국고아 두명 키우는 픽씨 부부
"딸들 덕분에 반한국인 됐다"

◆입양돼온 딸, 피부빛깔이 다른 자식이라해서 소홀히 키우지는 않는다는 픽씨 부부의 신념이 드러나는듯 아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맑고 밝다. 〈치즈–)하며 행복을 터뜨리는 픽씨 가족. 왼쪽부터 쉐리·픽스씨, 막내인 켈리(5), 아빠 로이·픽스씨, 작은아들 에이드리언, 9개월전 가족이된 큰딸 줄리(6)와 큰아들 제이슨군.

온티리오주 키치너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엘마이어(Elmin)라는 예쁜 이름의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빽빽히 나무가 들어선 가운데로 스위스의 산장같은 나무로 지은 집이 한채 그림처럼 서있다.

구엘프대 교수로 메케니칼·엔지니어링 박사인 로이·픽스씨와 쉐리·픽스씨 부부의 저택.

넓고도 큰 유리창 앞으로 아이들 놀이터가 내려다 보이는 응접실과 부엌을 돌아 계단을 내려서면 피아노와 벽난로가 있는 패밀리·룸이 있고 곁의 음악 연습실에는 보면대와 각종 악기가 놓여있다.

특히 딸들의 방에 들어서면 수십권의 그림동화책, 30개는 족히 될듯한 인형, 각종 동물장난감등이 즐비, 집주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를 직감케 한다.

이집이 바로 한국에서 고아로 입양되어 캐나다로 온 줄리(6), 켈리(5) 두 어린이가 아빠, 엄마와 두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이 가정이 여느 부유층 캐네디언 가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두 딸만 한국인이며 다른 식구는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점.

켈리는 생후 5개월때인 5년전 그리고 줄리는 6살이었던 9개월전 픽씨부부의 양녀로 각기 입양되어 왔다.

켈리는 세상에 태어난지 3주된때 동대문앞에 버려진 아기였고, 줄리는 3살때 고아원 문앞에 버려진 아기였다는 것이 픽스씨 부부가 양녀들의 출생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지난 주말 직접 엘마이어를 찾아간 기자에게 아빠인 로이·픽씨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 토요일마다 한글학교에 보내고 있지요"라고 말하고 딸들 덕분에 전 식구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반 한국인이 된 느낌"이라면서 웃는다.

본지가 로이와 쉐리 두 부부의 가정을 방문한 것은 키치너에 사는 교민 허용수씨의 제보때문.

6.25때 무공훈장을 받은 허씨는 수개월전 캐나다 참전용사들을 인솔, 키치너 한글학교를 방문했을 때 훌륭한 바이올린연주를 들려준 어린이가 캐네디언부모에 입양된 한국고아라는 말을 듣고 부모의 신분과 주소를 본지에 알려주었다.

픽씨 부부가 한국인고아를 입양하기로 결심한 것은 5년전 당시 아들 제이슨과 에이드리언을 둔 뒤 딸을 가지고 싶었던 열망 때문. 둘째아들 에이드리언이 2살이 된때 부인이 승마도중 허리를 다쳐 몇년간 아기를 갖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입양키로 결심을 했고 캐나다 입양기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아이를 입양케 된 것이다.

교포에게서 김치얻어다 먹이고
토요일마다 한글학교에도

칠드런·에이드·소사이어티(Children Aid Society)로 부터의 재산상태, 건강검사등 까다로운 심사와 입양수속을 끝낸 뒤에도 하도 기다리는 절차가 오래걸려 남편 로이씨가 직접 켈리를 데리러 한국으로 갔다.

아직 우유병을 떼지않은 켈리를 안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로이씨는 친자식 못지않는 애정을 켈리에게 느끼기 시작했고 공항에서 아빠의 품에 안겨 들어오는 누이동생을 보고 두 오빠는 환성을 질렀다.

켈리를 입양한지 5년뒤인 지난해 픽씨부부가 켈리보다 1살위인 줄리를 입양하게 된 것은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켈리가 커서라도 혹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

아직도 또렷또렷한 한국말로 "나 엄마, 아빠도 좋고 오빠들도 좋아요"라고 말하며, 가끔 김치를 찾는 줄리를 위해 허씨댁에서 김치를 얻어다 먹이는가하면 줄리에게는 피아노를, 켈리에게는 바이올린을 가르쳐 첼로를 연주하는 에이드리언과 기타를 연주하는 큰 오빠 제이슨과 함께 가족 연주회를 갖기도 한다.

언어만 잘 소통되면 애들을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같다고 말하는 쉐리 여사는 두 아들들도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내년 쯤에는 전가족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가족이 캐나다와 한국 양쪽 문화의 좋은 점을 섭취하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말하는 그녀는 한국의 고아원시절 그렇게 됐는지 알수 없지만 줄리 얼굴에 나있는 무수한 손톱자국을 없애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말한다.

이들 부부는 일본·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뱅쿠버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양인들에 대해 특히 그들의 깊은 문화전통과 근면성등에 대해 존경을 가졌었다고 말하고 단지 한국이란 나라에 가지는 의문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고아가 있음에도 불구, 왜 같은 한국인 가정에서는 입양을 꺼리는지, 또한 사랑스런 아이들을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친부모들의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한 점이라고.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두툼한 앨범 4권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여주는 쉐리 여사는 나중에 비록 아이들의 친부모가 나타난다할지라도 "저 아이들은 온전히 내아이"라고 강조하며 옆에 앉은 줄리와 켈리를 꼭 껴안는다.(래)

◆표정도 진지한 어린 연주가들. 줄리는 피아노, 큰오빠 제이슨은 기타, 에이드리언은 첼로를 연주하며, 귀염둥이 막내는 바이올린을 켜느라 여념없다.

10대 청소년들
용돈 대부분 유흥에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은 의상과 군것질, 비데오 게임에 용돈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드 유스 폴」사가 조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10대 청소년들이 소비한 돈은 81년보다 14억 달러가 늘어난 4백40억 달러로 밝혀졌는데 10대 청소년의 숫자는 70년대 중반보다 4백만명가량이 감소된 2천6백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10대 청소년들의 용돈 쓰임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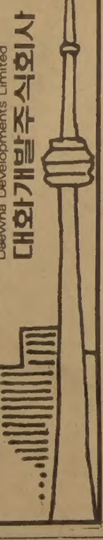
▲13~15세의 소년들은 주로 군것질에, 같은 또래의 소녀들은 의상 구입에 용돈을 다 써버린다.

▲16~19세의 소년들이 동전을 넣어 작동시키는 비데오 게임과 영화 등 오락에 용돈을 대부분 소비한 반면 같은 또래의 소녀들은 역시 의상비 지출이 많았다.

이밖에 밝혀진 사실들은 ▲이들 청소년들 가운데 11%가 집에 컴퓨터를 갖추고 있었으며(80년에 비해 1%가 증가) ▲77%가 용돈을 저축하고 있는데 이중 73%가 의상이나 홈컴퓨터 비데오 레코더 등의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교육전도사 청빙

본교회에서는 주일학교와 중·고등 학교학생들을 지도하실 교육전도사를 초빙코자 합니다.

⊙자격 : (1)기독교교육의경험있는 신학교 재학생이나 또는 졸업생
(2)신앙이 확고하고 사명감이 있는 일반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서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도 가함.
(3)2중언어로 지도할 수 있는 분.
⊙구비서류 자필이력서(한글및 영문)
⊙연락처 : 미씨사가연합교회
⊙주소 Mississauga Korean United Church
2500 Mimosa Rd. W.
Miss. ONT. L5B 1P7
☎ : 교회(416)276–5163
사택(416)277–2394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
당회장 유환진

CASH & CARRY
DOMINION SMALL WARES

APRIL 9 - APRIL 23, 1983		SPECIAL
Mr. Freeze 36ml	400x.5¢	$11.05
Mr. Freeze 75ml	200x10	12.15
M & M Candy 198g 24 count		30.60
Leaf Ball Gum	48x10	3.33(buy 10 get 1 FREE)
Wrigley's Gum	20x30	3.95
Smiles & Chuckles Fruit Jellies	300g	1.79
Smiles & Chuckles Turtles 400g		4.75
Smiles & Chuckles Turtles 200g		2.55
Ring Pops (50¢ BONUS PACK)	36x25	5.90
Fun Dip (30¢ BONUS PACK)	48x15	4.70
Dinasour Eggs	36x15	3.50
Big Foot	96+4x.5	3.15
Hot Lips	96+4x.5	3.15
Y & S Twizzlers Red & Black	36x10	2.69
Neilson Chunks Chocolate Bar	36x40	8.55
Neilson Rosebud Family	24x99	14.69

47 Orfus Rd
(도매상 Loeb 근처)
789 7214 매니저 김 근 래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술면허를 취득했읍니다.
ㅁ맥주 ㅁ정종·와인등
☎ 537-0432
내고향
통닭집

한국일보

"全道民 反共요원화"

全대통령, 江原道廳시찰

◇全대통령이 江原道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春川=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6일상오 金亨培江原지사로부터 道政보고를 받고 『올해는 세계도처에서 긴장이 고조되고있고 IPU (국제議會聯盟) 총회, 올림픽등의 서울유치로 초조해진 북괴의 온갖 책동과 도발이 예상되는 중요한 해』라고 지적, 『接敵지역이고 동해안을 끼고있는 江原道는 全道民이 반공요원화되어 무슨일이 있으면 즉각 신고할수 있는 주민신고체제의 확립과 예비군 민방위대등 모든조직을 활성화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세계에서 제일 부패된 곳이 북한의 金日成체제이고 그곳 주민들도 내심 불만이 많을것』이라고 말하고 『북한 공산집단이 도발해 오더라도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대처하면 무난히 소탕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 山地資源化와 관련, 『필요하면 산림의 間伐을 허가하되 반드시 補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郡과 협조하여 주요山地에 산림개발을 위한 진입로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佛·蘇관계 超緊張

間諜혐의 무더기 追放에 蘇서 강경

이탈리아·西獨도 蘇간첩 소탕계획

【파리·워싱턴外信=綜合】 프랑스정부가 5일 군사과학기밀에관한 간첩활동혐의로 프랑스駐在 소련외교관및 언론인등 47명을 무더기로 추방한데대해 소련은 즉각 이같은 조치가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소련과 프랑스양국관계는 극도로 긴장되고있다.

추방된 소련인들과 그들의 가족등 1백50명은 이날밤10시20분 (현지시간) 소련이급파한 여객기 일류신86機편으로 파리를떠나 모스크바에도착했다.

프랑스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소련인추방조치는 양국관계를 크게 악화시킬조짐을보이고있다고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정부도 요한·바오로2세교황암살사건과 관련, 소련간첩을 추방할것으로보이며 西獨도 소련인 간첩행위에 대한 일련의 소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프랑스의 추방조치는 서방각국으로 확산될것으로 보인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紙가 6일보도했다.

이신문은 서방측 정보기관들이 소련비밀경찰 (KGB)의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西유럽에서 암약중인 소련첩자 상당수를 적발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신문은 지난10월 영국에 망명한 블라디미르·쿠지시킨과 올해초에 해외여행중 서방측에 망명한 한소련첩자등 전향자2명의정보로 서방 방첩기관들이 KGB의 컴퓨터 부호를 해독할수 있었던것으로 믿어진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방첩기관의 한관리는 이번소련인축출과관련, 프랑스에서 공식임무를 띠고활동하고있는 소련인의수가 지난10년간 2백여명에서 약7백명으로 증가됐다고 밝히고 이들중 3분의1이 『전문적인 간첩들』이라고말했다.

4개財閥 10여명 召喚

금명간 拘束여부결정

土開公직원 8명도 조사

땅再買入사건

4개재벌기업의 비업무용토지재매입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부장 金京會 大檢검사)는 6일 韓一합섬 曉星 廣山 味元등 4개기업의 토지재매입 입찰참가자와 입찰참가를지시한 회사간부등 관계임직원 10여명과 토지개발공사 釜山지사장 박성수씨(54)등 토개공직원8명을소환, 매입경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7일안으로 토지개발공사의 관계직원도 불러 토지경매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사건은 감사원에서 일단조사를 끝낸것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는 법률적용 및 형사처벌범위만 결정하면 돼 금명간 관련자들의 구속등 형사처벌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소환한 회사관련자들에대해▲계열회사직원이나 친척들을내세워 담합, 경쟁입찰을 가장한 실질적인 단독입찰로 입찰을 방해했는지여부▲토지개발공사관계자들로부터 내정가를 사전에알아내는등 부정이있었는지 여부▲이과정에서 기업과 토개공직원간에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여부▲회사경영주가 재매입을 지시했었는지 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캐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건수사를 지휘하고있는 金중앙수사부장은 『수사는 감사원에서 넘어온 자료에따라 4개기업에 국한하겠으며 수사진행에따라 소환자수는 늘어나겠지만 수사는가급적 빠른시일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수사는 국회가 열리는 내주초전에 완결될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자료에 의하면 4개기업이 재매입한 땅은 토개공釜山지사관할구역인 釜山과 慶南지역일대에 있는것으로 토개공釜山지사가 80년9·27조치이후 매입했다가 되팔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4개기업이 일단팔았던땅을 토개공으로부터 재매입할때는 대부분기업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하지않고 社主개인, 또는 회사임직원이나 가족명의등으로 응찰, 낙찰받은후 등기도 이들명의로해 판사람이 재매입한것이 아닌것처럼 해놓은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소환된 기업관계자들은 재매입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입찰과정에서 토개공직원들과의 공모나 결탁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됨에따라 중앙수사부의 4개과를 총동원하는외에 서울지검 특수부의 검사들까지 수사팀에 보강, 중앙수사부 2과장 鄭城鎭부장검사는 曉星, 3과장 金泰政부장검사는 廣山, 4과장 李源性부장검사는 韓一합섬을 맡고있으며 차출된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전원과 형사1부柳濟仁검사는 味元을 담당하고있다.

한편 검찰은 韓一합섬이사 金根祖씨 폭행치사사건을 재수사하기위해 이사건의 민간인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소환, 진술을 듣고있다.

이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 金道彥부장검사는 6일 釜山의 산장호텔에서 金씨와함께 조사를 받았던 李武杰경리과장, 직원 韋奏瑄씨및 조사에 참여했던 감사원 직원들을 차례로불러 진술을 들었다.

金부장검사는 이날 『아직 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金씨의 시체부검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수사에 큰진척이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羅基瑄경사등 치안본부 수사대 요원 2명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競買참가한 3者에 돈주었는지도 追窮

한편 검찰은 이들 기업들이 해당토지에 대한 경매에 참가한 다른사람들을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위력으로 물러서게한것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있다.

治安본부장 更迭

「폭행致死」引責 後任 李海龜씨 內定

市警局長 朴培根씨

◇칠레방문일정을 단축, 5일하오급히귀국한 安前치안본부장이 金浦공항을 빠져나가고있다。

정부는 6일 韓一합섬이사 金根祖씨의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지고 사의를표명한 安應模치안본부장의 사표를수리하고 후임에 李海龜서울시경국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6일하오 이와함께 경찰대학장에 李鈞範 釜山시경국장을 승진발령키로 내정하고 치안본부4부장에는 姜玟昌해경대장을, 경찰종합학교장에는 宋央燮치안본부 3부장을, 치안본부 3부장에는 金相祚경찰종합학교장을 전보키로했으며 또 서울시경국장에는 朴培根치안본부 4부장을 전보키로했다.

이번인사로 물러나는 元容九경찰대학장은 黃海道知事로 내정됐다.

또 釜山시경찰국장과 해경대장은 금명간 임명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安전본부장은 『경찰의 조사를받다숨진 韓一합섬 이사金根祖씨 사건에대해 치안총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냈다』고 밝혔다.

◇朴培根씨

◇李海龜씨

國會부의장에 高在淸씨

民韓黨서 지명

柳致松民韓黨총재는 6일 야당측에 배정된 국회부의장후보로 高在淸 전원내총무를 지명했다. 柳총재는 또 당고문단에 劉沃祐·金判述의원과 尹宅重씨 (前문교장관)등 3명을 임명했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金殷夏 현부의장은 黨자문위원회의장을 맡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高在淸부의장

◇高在淸부의장略歷=▲全南潭陽출신·54세▲光州西中卒▲서울大商大卒▲新民黨대변인▲新民黨정무위원·인권옹호위원장▲인권위원▲民韓黨당무위원·원내총무▲韓佛의원친선협회회장▲서울大동창회부회장▲9·10·11代의원 ★얼굴2面

新聞의날 맞아 8일字休刊

제27회 新聞의날 (4월7일)을 맞아 8일자 新聞을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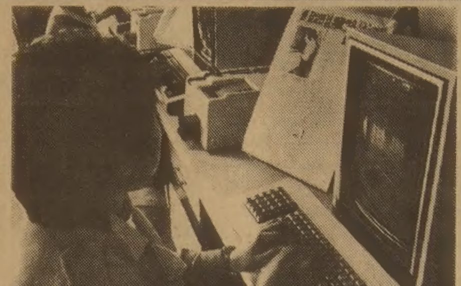
社告

한국일보 電算팀의 凱歌

컴퓨터 印刷

國漢文혼용 電算사진植字機개발

한국최초 "납活字가 필요없다" 印刷공정 自動化



◇문자혁명의 여명, 한국일보 전산개발팀의전산사진식자시스팀. CRT (음극선관) 가부착된 입력기의 자판을 두드려 식자및 편집과정㊤이 끝나면 모든 자료가 종이테이프에 기억된다. 종이테이프를 라이노타이프출력기에 걸면㊦특수인화지나 포지티브 필름에 찍혀나와 제판과정을 거쳐 곧바로 오프세트인쇄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 인쇄의컴퓨터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읍니다. 한국일보社전산개발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國漢文혼용 전산사진식자기시스팀을 개발한것입니다.

한국일보社전산개발팀은 이미 지난 79년 한글전용사진식자기시스팀을 개발, 한글인쇄에 일대혁신을 가져온바 있읍니다.

이번에 개발한 國·漢文혼용 전산사진식자기시스팀은 우리나라文化가 儒教文化圈에 귀속, 國·漢文혼용이 여전히 보편화되어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부응하기위해 독자적으로 연구, 발전시킨것입니다.

전산사진식자기시스팀은 컴퓨터를 이용, 인쇄공정이 편집기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자동화되므로 인력이크게 절감, 경영합리화를 구현할수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식자방식을 이용하므로 납활자가 필요없게되어 인쇄공정에서 公害의 원천인 납을 추방한 것입니다.

인쇄文化의 새로운 革命

인쇄술은 문화의 척도입니다. 美·日·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적, 잡지, 신문등 각종 인쇄물들이 컴퓨터인쇄로 처리되고 있읍니다.

세계가 한울타리로 좁혀들고있는 정보의 고속화시대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인쇄문화의 기술혁신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는 인쇄공정이 전통적인 활자인쇄시스팀에서 전산사진식자기 시스팀으로 완전히 대체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일보社의 國·漢文혼용전산사진식자기시스팀은 인쇄문화의 꿈인 인쇄의 無公害, 自動化를 실현해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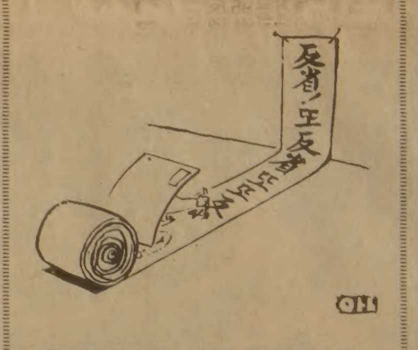
서양에 앞서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시대를 열었던 高麗高宗朝 (13세기중엽)이후 실로 8세기만의 비약입니다.

한국일보社가 개발한 國·漢文혼용전산사진식자기시스팀은 설계, 성능면에서 同種의 세계 어느나라제품보다 뛰어납니다.

한국일보社전산개발팀은 앞으로도 부단히 연구에 진력, 인쇄문화의 尖兵이 될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한 국 일 보 社

社會漫評



「新聞反省의 날」로 할까합니다…

地平線

「꿈의 球宴」이 어젯밤 서울에서 화려하게 벌어졌다.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세계 프로테니스 두頂上의 대결은 꿈같은 한판이었다. 한국스포츠 初有의 세기적인 행사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내한한 보리와 코너즈는 비록 테니스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그 이름만은 익히 알고 있다. TV화면으로 친숙해진 두스타의 「巨力」은 과연 스포츠의 巨人임을 거듭 확인케 했다. 「서울의 名勝負」는 오래 기억에 남을만 했었다.

▼테니스의 發源은 신사의 나라 영국이다. 로얄테니스나 리얼테니스라고 불린 실내경기가 옥외스포츠로 발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상업화 시킨사람은 영국의 윌터·크로프톤·윙필드 소령이다. 1968년부터 아마선수에게도 문호를 개방, 프로와 더불어 시합을 갖게 되었다. 유명한 윔블던대회가 시작된것은 1877년이다. 보리는 이대회 5連覇의 偉業을 이룩하여 「프로테니스皇帝」로 군림했었다.

▼금년초 월드 테니스誌는 82년 최우수남자선수로 지미·코너즈를 뽑았다. 그는 프로테니스가 이젠 단순한 球技가 아니고 格鬪技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명예도 명예지만 주먹만한 공한개에 2만달러에서 20만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붙는다. 모델광고료도 엄청나다. 그러니 뼈를 깎아 내리는 경쟁이 치열하다. 긴장과 고통의 연속인 시합의 부담도 대단하지만 훈련의 強度 또한 놀랍다. ▼두 거장은 「프로의 化身」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리는 매일 4~5시간의 강훈을 견뎌냈다. 그 忍苦의 보답을 돈으로 환산하는것은 어렵지만 그동안 수입은 재벌급으로 쌓아 올렸다. 노장 코너즈는 72년부터 지난해 까지 거액의돈을 벌어들였고 보리는 73년이후 6천만달러의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보리는 영원한 勝者는 없다는 듯 은퇴를 선언했다. ▼서울의 大決戰으로 우리는 프로의 정신과 테니스의 정수를 한꺼번에 보았다. 날로 확산되는 테니스 붐이 더 가열될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테니스가 올림픽을 制覇할 희망이 여기서 싹틀수 있기를 바라고 싶다.

솔로몬國 首相 8일 한국訪問

솔로몬 아일랜드의 솔로몬 마마로니首相이 金相浹국무총리의 초청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공식訪韓한다.

마마로니수상은 訪韓중 金총리와 회담을갖고 양국의 우호증진및 경제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솔로몬 아일랜드는 濠洲동쪽 南太平洋에 위치한 섬나라로 3만㎢의 면적에 인구는 24만명이고수도는호니아라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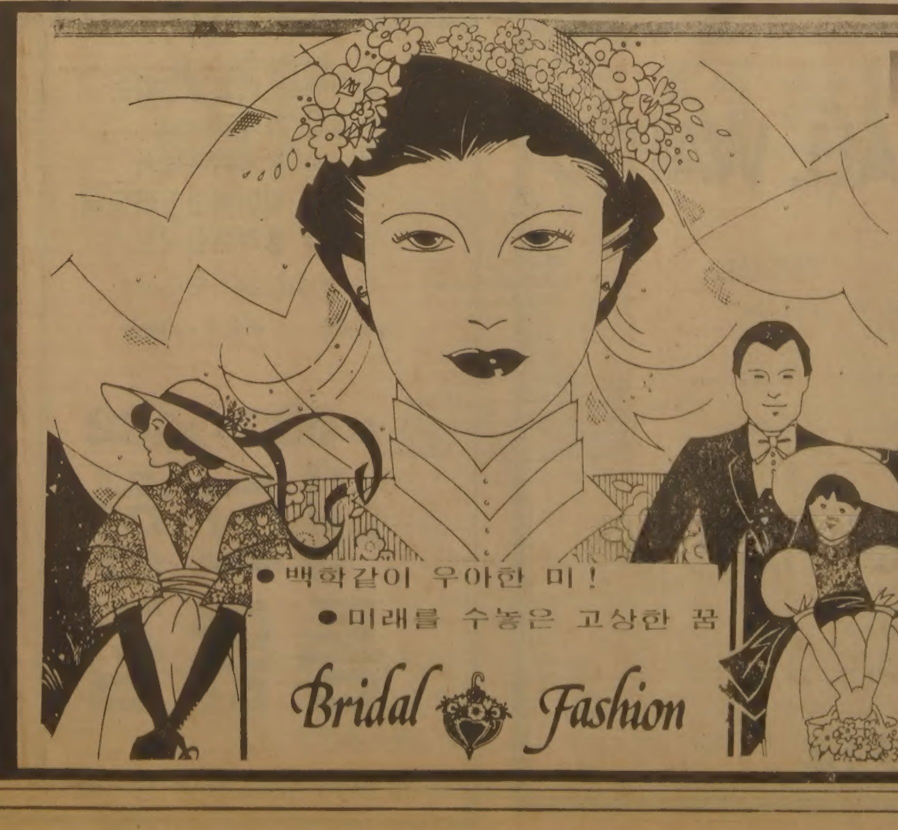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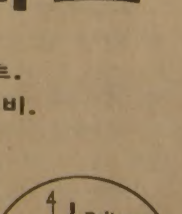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美, 泰에 武器지원 고려

베트남 國境침공 擴戰에 대비

泰, 對越 외교攻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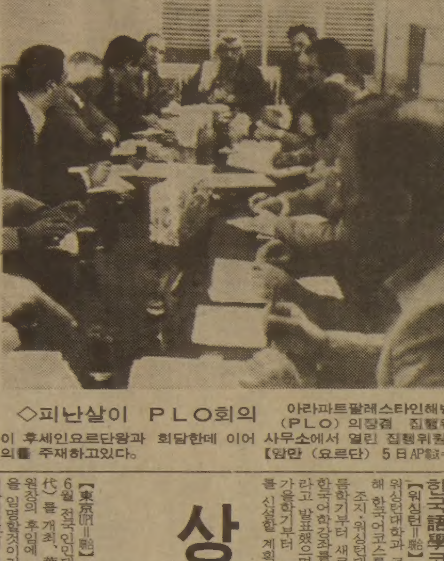
【방콕UPI=聯】 타이군과 베트남군의 캄보디아국경전쟁이 6일째를 맞은 5일 확전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레이건美행정부는 1954년 마닐라條約을 발동, 동맹국인 타이에 무기를 공급할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국무성의 폴·울포위츠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차관보는 5일 타이에 도착, 미국의 對타이무기공급문제에 관해 타이정부지도자들과 6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美국무성의 앨런·롬버그대변인은 지난4일 워싱턴에서 타이정부가 미제무기의 추가공급을 요청해오지 않았으나 미국은 對베트남戰을 맞고있는 타이에 대해 우리들이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타이정부와 긴밀히 협의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이정부는 방콕주재 18개국대사들에게 타이-캄보디아접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상황을 설명하고 베트남軍의 越境침공을 규탄함으로써 베트남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했다.

아르사·사라신 타이 외무차관은 이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5개국과 歐共市(EEC)및 일본·호주등 동맹국과 베트남·소련대사들에게 상황브리핑을 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人에 대한 베트남의『비인도적이고 무차별한 만행』과『고의적인』타이 주권침범행위를 규탄하고 소련이 베트남軍에게 무기를 제공하여 간접지원하고있다고 비난했다.



◇피난살이 PLO회의 아라파트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겸 집행위원장이 후세인요르단왕과 회담한데 이어 사무소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암만(요르단) 5日AP統=聯】

북해油價 2.5% 引下
노르웨이 3월1일 소급적용

【오슬로UPI統=聯】 노르웨이는 5일 北海산원유가격을 2.5% 인하했다고 노르웨이 국영 스타트오일 석유회사대변인이 밝혔다. 3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노르웨이의 가격조정으로 북해산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50센트 인하되어 29.50달러가 됐다.

스타트오일의 빌리·울센대변인은 석유시장에는 아직도 상당한 공급과잉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가에 대한 추가인하압력이 곧 다가올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유가인하 결정은 지난달30일 영국국영석유공사(BNOC)의 원유가인하조치에 뒤따른것이다.

조지워싱턴·코넬大 韓國語學코스 開設

【워싱턴=聯】 미국의 조지·워싱턴대학과 코넬대학은 올해 한국어코스를 개설한다.

조지·워싱턴대학은 올해 여름학기부터 새로 2년기간의 한국어학강좌를 개설할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코넬대학은 가을학기부터 한국어학강좌를 신설할 계획이다.

상무위원장에 彭眞
中共, 6월 全人代서 임명키로

【東京UPI=聯】 중공은 오는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를 개최, 葉劍英 상무위원장의 후임에 彭眞부위원장을 임명할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北京발기사에서 중공의 수상 万里가 5일 이 신문사의 대표단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万里는 또 중공의 실권자 鄧小平을 지난68년 毛澤東의 정적 劉少奇가 축출된후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가주석에 추대하자는 요구가 지도층내에 대두됐으나 鄧 자신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제27회「신문의날」기념식에서 李振羲문공장관이 축사를 하고있다.

“언론事大 경계를”
李文公,「신문의날」기념식 祝辭

제27회「신문의날」기념식이 6일상오10시30분 신문회관에서 李振羲문공장관 文胎甲한국신문협회장등 언론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언론인 복지향상을 도와준 李承潤한국해외건설협회장과 洪承萬前신문윤리위원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李振羲문공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국제적 물결속에서 자칫 國籍을 잃게될지 모를 국민들에게 소속의식을 불어넣어주는 일,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국제정세 정보를 신속히 알고 전달하고 대처하는 기능, 선진사회의 실용적 정보를 입수, 전파하고 先進國을 향한 국민들의 의지를 깨우쳐 분발시키는 일은 우리 언론만이 할수 있는 귀중한 시대적 召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정한 언론의 국제화를 위해서 언론은 먼저 남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고 세계를 볼줄 아는 자세를 확립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특히 금년은 유엔이 선포한「세계커뮤니케이션의 해」로서 선진국중심의 일방적 뉴스취재및 배분구조에 대한 국제적인 自省과 새로운 국제정보질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의 정보시장 독과점권 행사도 경계해야하겠지만 그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의식속에 殘存해있을지 모를 언론事大주의, 언론식민주의의 殘滓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브라질서 反政데모
1명死亡 96명부상

【상파울루(브라질) UPI統=聯】 국내경기침체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브라질 최대산업도시 사웅파울루에서 5일 약 1천5백명의 데모대원들이 격렬한 반정데모를 벌이며 경찰과 유혈충돌하여 1명의 사망자와 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웅파울루 경찰은 데모대들이 12시간에걸쳐 상점의 물건을 약탈하고 부서하는동안 사웅파울루시내를 누비면서 프랑코·몬토로 州지사의 관저까지 8㎞의 거리를 행진, 관저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쇠울타리 30m를 뜯어내고 몬토로지사가 그들의 대표와 면담해줄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蘇, 80년에 군사비 2천70억弗 지출
예산48%… 美보다 6백30억弗많아

【워싱턴UPI=聯】 소련은 지난80년도에 군사비로 기록적인 2천7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미군비관리 군축국이 6일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

세계의 군사지출및 무기이전 이라는 제목의 이보고서는 소련이 80년도에 지출한 군사비 총액은 국내GNP(국민총생산)의 14.6% 전체예산의 48%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같은해에 지출한 군사비 보다 6백30억달러가 많은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고서는 같은 해에 미국이 지출한 군사비는 GNP의 5.5% 전체예산의 25%인 1천4백40억달러였다고 말했다.

바機構 외상회담

【리베=聯】 바르샤바조약기구는 6일 프라하에서 2일간의 외상회의를 소집, 지난 1월 바르샤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對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불침조약체결제안및 유럽배치 핵미사일 문제등을 토의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정상회담이 끝난지 이미 예견된것으로서 바르샤바측은 이회의의 일정이 4월상반기라고 말했을뿐 관례대로 정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外信 안테나

北傀 人民會議개최

【東京=聯】 북괴는 5일 북괴최고인민회의 제7期 2차회의를 金日成참석하에 平壤에서 개최한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라디오청취전문통신인 RP통신은 6일 북괴의 평양방송이 5일밤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다고 전하면서 회의의제는▲83년도 예산▲조직문제로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일본신문들은 조직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킨것으로 보아 북괴내부에 인사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코펜하겐서, 40여개大 75명참가
유럽지역 한국學 7차대회개막

【제네바=聯】 유럽지역 한국학제7차대회가 전유럽40여개대학에서 75명의 학자들이 참가한가운데 5일(현지시간) 코펜하겐(덴마크)근교 헬러롭·파크호텔에서 5일간 예정으로 개막된다.

이대규모한국학심포지엄에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프랑스의 솔본느, 기타 소련·체코·폴란드등 동구권국가의 대학등 모두 40여개대학의 학자들이 모여 한국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이에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에 발표될논문은 인문과학분야의 논문20편이 선정된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등 規制요구
美업계 對韓수입에

【워싱턴UPI=聯】 미국의 특수강업계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각종 외국산 특수강제품의 미국내시장점유율을 향후 5년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것을 미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미특수강업계는 4일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근년들어 외국산 특수강제품의 미국내시장점유율이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제품의 품목별 수입량이 이러한 급증이전의 최고수준으로 제한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이건대통령은 60일이내에 ITC권고안에대한 수락, 정정또는 거부를 결정해야한다.

社說

國際化와 自主意識
—「신문의날」우리進路를 생각함

오늘의 時代潮流는 國際關係의 互惠的「相互依存性」의 증대와 더불어 情報化의 진전에따른「同時的世界」의 출현으로 특징지어진다. 때마침 제27회「신문의 날」을 맞이하면서 韓國言論人들은 올해 표어를「言論의 國際化」로 다짐하였다.

通信衛星들이 地球위 任意의 지점을 동시에 결합시키는 상황에서 유엔은 금년을「國際커뮤니케이션의 해」로 정했다. 한편 地上의 中繼시설을 경유하지않는 직접受信方式에 의한 音聲및 畵像의 전파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특히 電子工學技術의 눈부신 혁신은 우리가 적응해야할 國際社會의 環境條件을 엄청나게 변모시키는 중이다.

이는 우리時代의 다방면적 文化交流가 즉각적이며 直擊的으로 된것을 말해준다. 그같은 與件변화에 즈음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開發途上國이 직격적 國際文化交流의 충격을 여하히 감내 또는 소화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게다가「相互依存」을 말하기는 쉬우나 눈여겨 살펴보면 그것은 주로 일방적인 情報와 技術과 人的移動의 흐름으로 표현되기쉬운 것이다.

정신차려 對應해야할 國際情勢의 도도한 潮流라고 생각된다. 80년대 韓國이 中進國의 지보에서「先進祖國의 창조」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깊이 유념할바다. 그리하여「신문의 날」기념대회의 宣言文은「言論人의 視野와 意識이 先進化되지않고서는 祖國의 先進化를 기대할 수 없음을 自認한다」고 했으며 또「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더욱 切感한다」고 부언하였다. 國際化를 말함에 신문·통신·방송등 言論機關의 제반시설이나 처우조건을 先進國수준으로 끌어올리는 現代化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에 그치지 않는「姿勢」문제를 강조한 셈이다.

무릇 國際的인 視野와 意識을 다짐할때의 自體確認은 몇가지 유사하면서도 質的으로 판이한 개념규정상의 구별을 필요로 한다. 우선 先進國일부 사람들이 표방하는「世界主義」란 개인을 세계에 직결시키려는 無國籍的 思考形態일 따름이다. 그리고 일부大國의 팽창주의세력이 사실상 노리는「普遍主義」는 계층적 질서로 각국 관계를 규율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본시 國際化나 國際的心性은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전제로한 폭넓은 유대의식이나 상호의존을 지향하는 것으로 발전해왔다. 물론 그것은 小兒病的인 民族排他主義의 좁다란 울을 헤아리게하는 한층 높은 發展단계를 뜻한다.

회고하면 1896년 4월7일 國權상실의 위기상황에서 獨立協會가「독립신문」을 창간하여 自主獨立과 人權옹호, 그리고 民主的近代化의 횃불을 밝힌이후 우리나라言論은 우선「民族主義의 旗手」로서 향도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는 물론 우량한 전통이고 또 지난날 상당기간에 걸쳐 時代的召命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던것이다. 하나 일부人士들은「民族」의 표방을 마치 전매특허인양 상업적으로 활용했는가하면 때로는 國粹主義에 휩쓸기도 했었다.

이제 우리는 自主精神에 든든하게 두발을 딛고 세계의 進運에 뒤떨어지지 않는 開放的 國際化의 座標認識을 굳게 가다듬을참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國家安保는 고립속에 성립되지 않는다. 보태서 우리經濟의 國際依存性이 심화되는동안 對外貿易과 企業및 人力의 海外진출은 증가일로에 처해있다. 세계의 情報와 知慧의 交通整理속에 主體的內實化와 外延확대를 다지며 先進化에 이바지하는 노력에서 겸허한 最善을 期必하고자 한다.

개탄스런 企業倫理
—土地재매입 不正說과 우리所感

土地開發公社로부터 땅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생긴 4개재벌기업의 不正혐의사건은 지난4일 관계장관에 대한 金相浹총리의 철저수사지시에 따라 韓一합섬간부에 폭행한 경찰관 사건과 함께 檢察이 本格的인 수사를 개시, 큰 관심을 끌고있다. 그와동시에 폭행경찰관 문제와 관련, 어제 治安本部장이 도의적책임을 통감코 自進사의를 표명했다한다. 깨끗한 행정을 펴려는 정부의 단호한 뜻을 알수있게 한다. 모쪼록 이계기에 진상을 말끔하게 규명하여 국민의혹이 가시도록 하기 바란다.

사실 애초부터 이번사건의 核心은 土開公으로부터 땅을 재매입한 과정에서 포착된 非違혐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수사가 빚은 여파때문에 그 核心과 초점이 한때 흐려졌던것이다.

그러던차에 金총리지시에 따라 ①再買入과정에서의 경매不正여부 ②土開公과 買入業體관계자간의 결탁유무및 ③金品授受여부를 監査院의 조사자료에 의거, 검찰이 全面的으로 수사하게된 것이다.

결과는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이 사건에서 우선 우리가 개탄을 금치못하는 것은 企業들이 9·27조치에 따라 非業務用이라 해서 일단 土開公에 넘긴 땅을 되사들인 사실자체에 있다. 거액의 銀行빚을 지고있는 그 企業들이 빚더미로 시달리면서도 土地투기를 일삼는것으로 비난받기쉬운 그런일을 자행한 처사는 倫理面에서도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 企業들이 거액의 은행융자를 받고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企業財務구조의 不實에 연유하는 동시에, 다른편으론 그다지 손쉽게 얻을수없는 은행여신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각별한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또 그와같은 혜택은 기업이 고용과 생산을 늘려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役軍으로 그 사명을 다하리라는 一般的기대속에서 제공되며 기업들이 이 사실을 모를리는 없을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1백40개재벌기업중 자기자본이 부채의 5분의 1을 웃돌거나 구제금융을 받은일이 없는 기업은 42개에 지나지않는다. 이번에 不正再買入혐의로 적발된 4개재벌도 그런 不實요건을 아직 지니고 있는 모양이다.

9·27조치에 따르면 위에 言及한 不實요건(자기자본 20%미만이거나 구제금융을 받은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재벌그룹일지라도 부동산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土地경매과정에서의 不正여부에 관계없이 잘못을 저지른게 틀림없어 보인다.

이 기회에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것은 9·27조치를 관리하는 銀行들이 所期의 일부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다. 갈팡질팡은 이에관한 충분한 善後策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비단 土開公으로부터 땅을 再買入한 네企業만 아니라 土開公아닌 다른곳에다 일단 처분한 땅을 되사들인사례는 없는지, 또 9·27조치중 현실에 맞지 않는 規定은 없는지를 조사하여 고칠것은 고쳐야 할 일이다.

낮은 與信金利나 기업환경및 노사관계의 개선등은 그모두가 企業이 더욱 의욕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公共의 특혜라 할수있다. 기업이 이를 惡用하여 이번의 사건같은 탐욕적인 행위를 자행할때, 모처럼의 이런 국가적 노력과 그목적은 헛되게 되게 마련이다. 있어 안될 일이라 하겠다.

高在淸 국회 부의장

50年代초 야당에 入門했으나 9代 국회때 院內에 진출한 晩成型. 初選 때 新民黨대변인으로 발탁된이래 新民黨 정무위원, 立法위원, 民韓黨 원내총무, 3選의원, 국회 부의장등「10년 정치歷」에「拔群의 정치力」을 보인 실력자.

누구와도 가까이 지낼수 있는 성품에 매사를 대화로 해결했다.

聯에 참여했던게 緣이돼 출업후 야당의 母體인 民國黨에 참여했으며 民主黨 때는 趙炳玉박사를 도와 創黨의 숨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상식과 合理」의 정치인

와 토론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式의「상식과 合理」에 충실하다. 豪酒에 등산과 바둑을 즐기며 소문난 愛妻家. 부인 徐喜錫여사(50)와의사이에 1남3女를 두고있다. 서울商大 재학때 反託學

李海龜 치안본부장

국민속의 警察像확립 노력

신임 李海龜치안본부장(46)은 본부4부장, 서울시경국장을 거쳐 경찰총수에 오르는 정통경찰계통파로 본다.

李본부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신망을 받아왔지만 지난1년3개월동안 수도치안을 맡으면서「분위기 쇄신」

안」을 강조, 항상 시민의 협조와 호응을 바탕으로한 국민속의 새경찰상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서글서글한 성품으로 상하관계가 원만하고 조직의 학구파지만 통솔력도 인정받고있다.

61년 高大法大를 졸업, 그해 행정고시(13회)에 합격한 李본부장은 적극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치안본부특수대장 경기 도경국장 경찰종합학교장 경기 ... 을 역임했다. 부인 朴京點여사와의 사이에 2남2녀.

第14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白 壯快한 勝利

第13局 總譜 1-152手完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徐 奉 洙 〈3勝1敗〉
黑 (4段) 姜 勳 〈2勝2敗〉

【白不計勝】 徐7단은 이것으로 현재3승1패의 張秀英6단을 또 한걸음 바짝 뒤쫓게되었다. 누차 말한대로 徐·張의 최종한판승부는 거의 결정적인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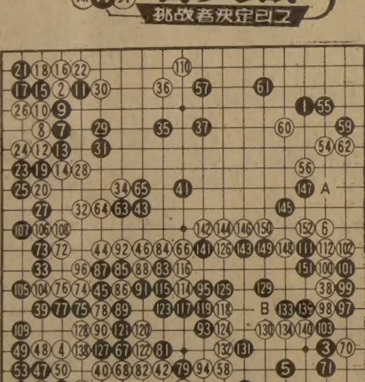
한편 姜4단은 2패를 기록한 때문에 나머지2국을 전승하지 않으면 자칫, 다년간 정이든 名人戰자리에서 탈락할지모른다. 똑같은 2승1패가 이 바둑으로 엄청난 큰 격차를 빚어버린 것도 리그전에서는 으레생기는 일이지만 姜4단의 경우는 뭔가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느낌이어서 특히 분발할것을 요망하고싶다.

이바둑은 처음 黑1·3 그리고 5 등의 예날포석이 흥미로왔는데 좌상귀에서 黑9이하의 큰밀어붙이기 대형정석을 택하는바람에 국면이 단조롭게 되었다.

이리하여 당분간 소강상태로 지구전이 예상되던 참나 黑43, 45의 공격이 조급해서, 관세를 그르치는가 싶었다. 43으로는 여전히 느긋하게「A」로 육박겸 전개해야 되었다는 중론이다.

한편 白도 54는 그한줄아래가 정수였던 모양이지만 승부의 포인트는 黑69, 72자리를 지키지 않은데에 있었다.

반대로 白72를 당하여 이하78로 역습하게되자 그간 균형이 잡혔던 관세가 白쪽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끝으로 黑123이 과했고 또 129로「B」에 두어볼 마지막기회마저 놓친끝에 151까지의 黑대마가 맥없이 함몰되었던 것이다. 113…86 【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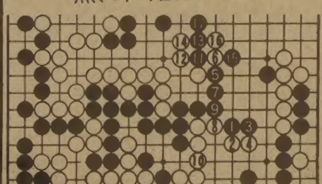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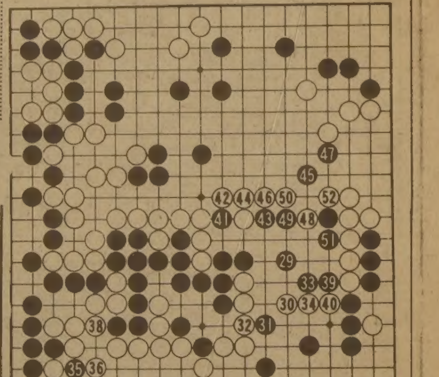
黑, 어이없는 大敗

第13局第9譜 129~152

白 (7段) 徐 奉 洙 〈2勝1敗〉
黑 (4段) 姜 勳 〈2勝1敗〉

문제의 黑29부터 재현 해본다. 앞서 지적했듯이 29로 좀더 강하게 참고도처럼 두는수는 어땠는가 하는것이 국후에 거론된 점이었다. 즉 黑1에 달려 白2때 3으로 뻗어 白4를 종용하고 5·7이면 白10이 불가피하니 여기서 黑11 이하 17로서 좌측白과 최후의 수상전을 벌일 찬스였다는 것이다.





Canadian Distributor:

J. C. GOLF Enterprise Ltd.

J.C. Golf Enterprise Ltd.
2779 Thamesgate Drive,
Mississauga, Ontario L4T 1G5
(416) 671-4555/678-2444

봄철 대매출

시즌 오픈을 앞두고 교민 여러분께 노매가석으로 봉사코자 하오니 일차 왕림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홍 올림

PRE SEASON SALES

		Sale Price	Reg. Price
JUNIOR OR STARTER SETS			
1 Driver		45.00	75.00
4 Irons		96.00	196.00
1 Putter		12.00	26.00
7" Golf Bag		27.00	46.00
1Head Cover		N/C	4.00
	Total / You Save 167.00(92%)	180.00	347.00
J.C. CUSTOM IRONS(Ping Copy)			
#3-PW	26.00× 8 pcs	208.00	392.00
#3-PW or SW	25.50× 9 pcs	229.50	441.00
#2-SW	25.00×10 pcs	250.00	490.00
	You Save 240.00		
J.C. CUSTOM SAND IRON (Custom Classic)		29.00	58.00
BEAUWOOD PRO MODEL IRONS (Forged) #3-PW		299.00	512.00
BEAUWOOD UNIFORM FLEX IRONS #3-SW(9 pcs)		324.00	531.00
BEAUWOOD COLLECTOR'S EDITION IRONS (Model BW-33) #3-PW		384.00	514.00

WOOD SALES

		Sale Price	Reg. Price
BEAUWOOD PRO MODEL Persimmon Wood Open Stock		49.00	95.00
BEAUWOOD PRO MODEL Persimmon Woods #1-3-4-5	67.00×4	268.00	380.00
BEAUWOOD COLLECTOR'S EDITION Model BW-33 Persimmon Woods #1-3-5	89.00×3	[illegible]7.00	390.00
#1-3-4-5	85.00×4	340.00	520.00
J.C. CUSTOM PERSIMMON WOODS (Personal Model) #1-3-5	66.00×3	198.00	285.00
J.C. CUSTOM PERSIMMON WOODS (Englishman Model) #1-3-5	69.00×3	207.00	297.00
#2 Wood		72.00	99.00
50' The Authentic Persimmon Wood (Year of 1955 Original Head) Single Wood		95.00	200.00
UP-SHOT PUTTERS		29.00	48.00

메아리

國際化

地球는 둥글다. 地球가 둥글다는 것은, 이 땅덩이 위에 최장 12시간의 時差가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 표준시와 미국의 東部, 大西洋표준시 사이에 대강 그런 時差관계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뉴스보도는 그따위 時差를 아랑곳 않는다. 뉴스보도에 있어서, 地球위 두 지점의 時間距離는 零이나 같다.

워싱턴의 미국 국무성은 매일 아침 11시에 뉴스·브리핑을 한다. 그 시간이 서울에서는 새벽1시다. 朝刊신문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이 時差가 다시없는 苦役이지만, 브리핑에서 나온 뉴스는 새벽 3시간 최종 마감에 가까스로 닿고, 서울시내 독자라면 새벽 6시께쯤 그 뉴스를 읽을 수가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 이것은 희한한 일이다. 예를들어 6일아침 브리핑에서 있은 국무성발표는 미국의 7일字 朝刊에 실린다. 독자들은 근 20시간을 지나 그 기사를 읽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뉴스는 7일字 朝刊에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독자들은 발표가 있은지 5시간만에 그 기사를 읽는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수가 있다. 79년「10·26事態」가 일어났을 무렵, 나는 뉴욕에 있었다. 그러나 27일 새벽4시에 있은「朴正熙대통령有故」의 발표를, 나는 26일저녁 월터·크론카이트의 입을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서울시간과 뉴욕시간의 時差, 그리고 재빠른 뉴스의 전파가, 내일 뉴스를 오늘 듣는 결과를 가져온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뉴스는 1초동안에 地球를 일곱 바퀴 半 돈다. 전파를 타고 방대한 분량의 정보가 국경을 넘어 유통된다. 時間距離 제로인 地球는 하나의 村落─地球村으로 변한다. 금년도 제27회「신문의 날」(7일)의 표방이「언론의 국제화」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 언론이 地球村에서의 生存戰略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의 나타남이다.

이날에 즈음한 編輯人協會의 선언문은 국제화의 命題로 ①언론인의 자질향상②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언론환경의 활성화③제작기술의 혁신을 들었다. 국제화의 當爲性을 잘 설명했다 싶으나, 읽고 나서도, 어딘가 막연한 생각이 남는다.

여러해전의 일이지만, 어떤 미국대학 신문학과의 한국인 교수가 우리나라 신문을 보자고 온적이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유학길에 올랐으므로 우리나라 신문사정에 대하여는 아는것이 별로 없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온 그는 1주일동안인가, 한국일보의 24시간을 관찰했다. 밤을 새워 편집·인쇄工程을 살피고, 경찰야근기자를 따라, 경찰서와 사건 현장을 돌았다.

일이 끝났을 때 그는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 그 으뜸이 납냄새가 물씬한 인쇄工程이었다. 미국에서는 벌써 1백여년전 低級紙에서 마저 사라진 연재소설이, 8면신문에 3편 (當時)이나 실리는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등의 紙面評도했다. 기자들의 자질에 대하여는, 인사치레인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후한 점수를 놓았다.

그 1주일동안 그 한국인 교수가되풀이한 물음이 꼭 하나 있었다. 나와 단둘이 될적마다, 목소리를 낮추어, 지금 이 편집국안에「檢閱官」이 와있느냐 묻는 것이었다. 도대체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느냐는 反問끝에, 언제라도 편집국안에 의심가는 사람이 보이면 지적하시오, 누구든 당신에게 신분증을 내 보이도록 하겠소─라고 말해준 뒤에야 그는 半納得을 했다. 그만큼 그가 품고온「常駐檢閱官」의 先入見은 꽤나 뿌리깊었다. 심지어「檢閱官」관계는 리포트에 쓰지않을테니,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조르기까지 했으니까….

「언론의 국제화」란 말을 듣고 지나간 일을 되살린 것은,「국제화」‖「국제적인 평가」의 연상이 있었기 때문이다.「언론의 국제화」란말속에는 의당 언론의 국제적인 평가를 높인다는 뜻이 들어 간다는 생각이다. 선언문에서 보면 2항「언론환경의 활성화」와 관계될 것이다.

앞서의 에피소드에서 보듯 우리언론의 국제적인 평가는 實相보다 너무 낮다─는 느낌이 종종든다. 그렇다고 우리實相이 높은 평가를 받을만큼 만족스러운것은 아니다.

여하간「언론의 국제화」는 우리언론의 국제적인 평가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함축하는 것이라야 옳다. 그 결과는 나라의 對外이미지와도 관계된다. 한나라 언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그나라가 先進途程의 어디쯤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그한가지例가 미국정부의 年例人權報告書다.

정확한 비유일지는 모르나「언론의 국제화」는「경제의 국제화」와 견주어 볼만할 것 같다. 활발한 무역거래가 있더라도, 일방적인 入超를 기록하는 경제는 건전치가 못하다. 정보유통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GNP가 후진국수준이면서 선진국 못지않게 무역거래가 활발한 경제는 想定해 볼수가 없다.「경제의 국제화」가 가능하려면 相應한 경제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국제화」를 하나의 當爲로 받아 들일때,「언론GNP」의 국제비교 또한 의당한 發想이 아닌가한다.

金昌悅 <編輯委員>

蘇의報復「큰불덩이」로

──佛「外交官 강제추방」의 衝擊… 그餘波

蘇"政治的조치다"경고

秘密탐지、轉向KGB요원이 폭로

미테랑、직접 추방결정

파리는「소련첩보망에대한 대규모소탕」이라는 신문 제목에서 佛·蘇관계의 새로운 긴장을 예측하고 있다.

유럽에서 소련 외교관의 대규모추방은 71년 영국보수당정부가 1백5명의 소련인을 추방한이래 이번 프랑스좌파정부의 조치가 최대규모로 꼽힌다.

지난주 프랑스 당국은 패트릭·대리에 (26) 라는 한에너지관계 국영기업체의 문서관리 직원을 소련대사관원에게 문서를 넘겨준 혐의로 체포했었다.

이외에 구체적인 첩보행동을 프랑스당국은 아직 밝히지 않고있으나 이번 조치가 프랑스 국토경 감시국 (DST) 에 의한 상당기간에걸친 추적의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조치는 미테랑 대통령이 소련인의 간첩행위를 평가하여 직접 결정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5일의 내무성 성명은『프랑스는 反첩보공작에의해 소련의 비밀첩보조직이 조직적으로 프랑스영토내의 기술및 과학정보 특히 군사정보를탐지하는데 관련돼있음을 밝혀냈다. 대부분 외교면책권을 이용한 외세의 공작요원에의해 야기된 이번사태의 심각성과 누적성은 관계자에 출국조치를 정당화 시키기에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례적으로 단호한 프랑스의 대규모 소련외교관 추방조치로 소련은 5일 일류신 96특별기를 샤를·드골공항에 대기시켜야만 했다.

사전에 추방통보를받은 47명의 소련인들은 가족과함께 소련대사관 버스로 5일낮공항에 도착, 비행기에 올랐다.

소련대사관 서열3위의 니콜라이·체베리코프 1등참사관을 비롯해서 타스통신지국장 올레스·시리코프, 블라디미르·클리코프스키 기자도 일행에 포함되어있었다.

프랑스 내무성은 40여명의 공관원이라 표현했으나 정확히 47명으로 밝혀진 추방소련인들은 외교관 40명, 유네스코 파견요원 3명, 타스통신특파원 2명, 기타 국영기업체요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미리 출발을 준비한듯 가족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안은채 태연을 가장하면서 동료들의 전송속에 어제 하오2시께 (현지시간) 특별기에 올라 파리를 떠났다.

떠나기에 앞서 체베리코프 1등참사관은 유창한 불어로『오늘 아침에 출국통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소련대사관 제2의 프랑스通으로 꼽히고 있는 체베리코프의 귀국辭였다. 타스지국장 시리코프는 70~77년까지 파리특파원을 지냈고 80년 지국장이되어 파리에 다시온 인물인데 그는『이조치는 기자직업에 대한 침해이며 프랑스당국의 정치적 조치이다』는 말을 남기고 파리를 떴다.

지난주 프랑스정부는 프랑스인 문서관리직원의 체포이래 되도록 신중하게 이사태를 취급하려 했으나 발표2~3일전부터 파리주재 소련외교관에 대한 중대조치가예고되면서 부터 사태는 급진전했다.

『프랑스로 하여금 공개행동을취해 소련측을 당황케하려고 미국측에서 추방정보를사전에 보도기관에 흘린혐의가 짙다고 프랑스는 짜증스럽게 생각하고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외무성 성명은『이번조치가 양국관계에 영향을 주지않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부정적 결과가 야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소련측책임이다』라고 외교적용어를 사용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새로운긴축정책, 증세, 해외관광여행의 제한, 물가인상 등의 조치에 뒤이어 이번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킬수있게 됐다.

최근 스페인과 영국에서단편적인 소련 외교관의 추방은 있었으나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대규모이고 전격적이라는 점에서 모호하고 이례적인 미테랑의 결심을 말해주고 있다.

佛·蘇관계는 지스카르·데스탱의 보수정권때 보다 공산당과의 연정을펴고있는 미테랑의 사회당 정권에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미테랑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을 비난한이래 폴란드사태를 비판했고 최근에는 소련의 核정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등 소련에 대해 간격을 넓혀왔다.

퍼싱Ⅱ미사일의 서독배치 문제에 대해 미테랑은 좌파의 지원을 받는 평화주의자의 입장을 지지하지않고 소련의 SS20미사일이 배치돼있는한 퍼싱Ⅱ는 배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2월 셰이송외상의 모스크바방문에서도 퍼싱Ⅱ배치문제는 미해결의 숙제로남아있었다. 소련은 미테랑의 서독추입장지를 달갑지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미테랑은 좌파정부이면서도 영국보수당정부가 취한것과 같은 수준의 對蘇정치공세를 취해 소련과의 선을 분명히 한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드로포프소련공산당서기장은 셰이송외상을 2시간이나 기다리게한뒤 만나주었다.

이에 앙갚음이나 하려는듯 이 셰이송외상은 안드로포프와의 회담후 그를『로보트와 같은 인물, 유머감각이 없는 인물』이라고 혹평을 서슴지 않아 이미 두나라관계가 악화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프랑스는 지난 20년사이에 15명의 소련외교관을 축출했다.

65년에는 소련항공 파리지사장을, 70년에는 파리주재 외교관 5명을, 73년에는 공군무관을, 77년에는 유네스코대표부원을, 78년에는 무관1명을 각각 축출한바있고 80년에는 미라지2000機 비밀을 둘러싸고 파리주재소련영사 구에나디·트라코프를 축출했었다.

그러나 미테랑이 들어선 후 소련외교관이 축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는 이번 추방조치에 대해 모스크바측의 대응조치가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련대사관의 참사관 알렉산드르·아피프트는 자기공관원들이 파리를 떠날때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근거없고 독단적인 프랑스정부 조치에 항의한다면서『이조치는 프랑스정부의 정치적조치로 간주하겠다』고 미리 준비한항의의사를 밝혔다.

런던의 데일리메일紙는 본과 로마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따를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있는 소련인은 모두 2천4백6명으로 그중 7백명이 관용여권을 소지하고있다. 프랑스정부소식통은 관용여권소지자중 3분의1이상이 소련비밀경찰 (KGB) 요원이거나 이들과 관계를갖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파리=安炳璨특파원】

◇추방되는 蘇聯人들 프랑스주재 蘇聯대사관직원들이 5일 프랑스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받고 모스크바行비행기를 타기위해 샤를르·드골공항으로 떠나는 47명의 蘇聯人들을 대사관현관에서 환송하고있다. 【파리5日顯=聯合】

5分間 인터뷰

再選된 言論仲裁委長 安又萬

2년간 百5건 仲裁접수 "「批判기능의 弱化」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족할 당시엔 언론쪽에서 거부반응을 보이는등 오해도 있었으나 2년이지난 요즘엔 이제도의 당위성에대한 인식이 많이 넓어진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지난1일 再選된 安又萬 언론仲裁위원장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은 이제도 시행2년을 긍정적으로 自評,『앞으로도 공정한 仲裁를 보장할것이며 언론쪽에서도 좀더양보하는 전진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安위원장은 중재위가 결코 언론자유를 제한하기위한 장치가 아님을 다시 강조했다.『중재위는 보도가 개인의 명예나 私생활을 침해했을때 이를 조화시켜 합의점을 모색하는 前置기관으로 설명할수 있겠지요』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년동안 접수·처리한 仲裁신청건수는 모두 1백5건. 이중 申請人과 被신청인측인 언론쪽의합의가 이루어져 媒體에서 訂正을한 경우가 33건 (31%) 被신청인측이 仲裁에 나오지않거나 신청인측과 의견조정에 실패, 즉「不成立」이 34건 (32%) 신청후 仲裁과정에서 신청인측이「取下」한는 경우가 32건 (31%) 기타 (기각또는 각하) 가 6건 (6%) 에 이른다. 1년에 약50件, 따라서 1주일에 1건정도로 신청이 들어오는 訂正보도신청率은 당초의 일방적예상보다 많지않은 수였다.

安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仲裁경험을 나름대로평쳤다.『언론쪽에선 仲裁 단계에 들어오기 전에 仲裁委밖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경향이있는데 그보다는 이곳의테이블에서 양자가 전말을 속시원하게파헤쳐 해결점을 찾으려는 흔쾌한자세가 아쉬운것 같아요』

安위원장은 이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提高를위해서는『역시 언론쪽에 기대할수 밖에 없지않겠느냐』면서『신청인은 반드시 문제기사가 보도된지 1개월내에 청구해야 한다는점등을 알려주면 좋겠다』고「협조」를 구했다.

또하나의 주문을했다.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에『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의 기능은 신속, 정확에 있는것으로 압니다. 물론 신문의 신속성은 상대적으로 그비중이 낮아지지않고 낮을수밖에 없는만큼 신속성이 뒤지더라도 정확쪽에 더비중을 두어나갔으면하는 바람입니다』

安위원장은 그렇다고 언론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라는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河長春기자】

◇再選된 言論仲裁委長 安又萬씨。

記者의 눈

言論과 色盲

「개 誤報」소동이 있었다. 지난해 일어났던, 不忘의 사건이다.

그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개에 관련된 誤報는 최근에도 있었다. 도사犬 한마리가 집주인아이를 물어죽인 사건을 보도하면서『어린이의 붉은 옷을보고 개가 흥분했던것 같다』는「이유」를 댄것이다. 개가 붉은 색을 구별 못하는 색맹임을, 이 기자는 잊고있다.

咸安의 개誤報나 도사犬의 흥분說은 서로 구성은 다르지만 비슷한 원인을 갖는다. 보는 눈이 하나뿐이었거나 單色化, 또는 편견에 바탕을 둔것이다. 그것은 마치「色盲」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관찰하여 마침내 誤導된 결론을 얻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漢城旬報가 창간된지 1백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오늘은 독립신문의 창간 87주년에 닿는, 신문의 날이다. 언론으로서는 가장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오늘의 언론환경을 한번쯤 되새겨봄도 뜻깊은일일것이다.

현대는 두말할것도 없이 情報의 시대이다. 올해는 유엔이정한 코뮤니케이션의 해이기도하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아래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수요자인 독자한테 歪曲되지않게, 제대로, 자율적으로공급할 의무와사명을 지닌다.

그런데, 신문이 백개라도 내용이 모두 다르게 마련인 관에, 우리는 주변에서『요즘 신문은 볼것이없다』『신문이 다 똑같다』라는「억울한」소리를 종종 듣게된다. 이 소리를들을 때마다 우리는 심히 불만스럽기도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다. 기사의 劃一性은 지방판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자신이 너무나잘 알고 보고 있기때문이다.

신문은 지방독자들을 위해 적은 紙面중 한면을 할애하여 地方版을내고있다. 말이 지방이지 서울을 제외한 全國이다.

그 큰 무대에서 나오는 사건을 요즘신문들은「독단일 도매」와 같은 通信을통해 공급받는다. 그러자니 정보未達, 정보畸型, 정보부족현상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지방판기사를 편집하다보면 그야말로 그게 그기사인 경우가 숱하다. 그제께의 江原版기사와 어제의 湖南版기사와 오늘의 嶺南版기사가 제목까지 똑같은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또 기사양이모자라 版을 못맞추고 오후늦게까지 기사가 더들어오기를 기다리느라 목을 빼고 있기가 일쑤다. 통신역시 기사를 공급하느라 애쓰는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는대로 받아 먹어야하는 신문의 고통은 더욱크다.

이 판에 誤報가 나오는 것은 극히 당연한 노릇인지도모른다.

언론의 눈은 복합적이어야한다. 言路의 단일구조는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좀더 충분한, 진실한 보도와 뉴스확인을 할 수 있는 濾過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오늘 신문의 날에 거는 우리 기대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선진조국창조라는 시대적 命題에합당한「언론환경의·先進化」를 定着시키기 위해서도 言路의 일방통행이나 色盲化현상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것이라고 믿는다.

【趙明九편집부기자】

증여·相續稅도 안물고 가족에 財産분산

財閥의 토지再買入 顚末

장인-前夫人-며느리등 總動員

財務구조 改善은「빛좋은 개살구」格

韓一合纖, 曉星, 碧山, 味元등 4개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토지 재매입 부정여부 수사는 이들 몇몇재벌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재벌기업의부동산매입에대한 문젯점의 제기로 평가되고 있다.

재벌의 부동산투자에 문제가 있다는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아니지만 정부가 9·27조치를통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적극유도하고있는 마당에선 다시한번 이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재매입에 문제가된것은 모두 釜山과 慶南에 있는 땅이다. 9·27조치에 따라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갖고 있는땅가운데 비업무용토지는 이를 팔아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한는데 사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기업이나 기업주 소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되어 처분대상이 된것은 총 8천4백33만7천평이었는데 이중 3천7백81만8천평은 자신들이 처분했고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土開公은 이가운데 그린벨트지역등 土開公이 인수할수없는 토지를 뺀 2천3백81만평을 작년말까지 매입, 이중 1천8백49만평을 지난3월말까지 되팔았다.

土開公이 매각한땅중 이번에 문제가 된것은 韓一合纖 曉星 碧山 味元 그룹이 재매입한 4건이다.

이번사건의 발단이 됐던 韓一合纖이 되산땅은 釜山市東區大昌洞3街103의1외 2필지의 대지 5백14평.

이땅은 金重源사장의 장인이자 韓一合纖고문인 崔漢雄씨 명의로 되어있었으나 비업무용으로 구분되어 82년1월20일 土開公釜山지사가 7억9천3백50만원에 매입했던것. 土開公은 이땅을 2개월후인 3월25일에 공개입찰에 붙였는데 大昌洞103의10 2백29평은 金사장의 동생이자 전무인 金重建씨가 내정가격과 똑같은 4억5천8백만원에, 大昌洞103의1외 1필지 2백85평은 역시 金사장 동생이자 상무인 金重光씨가 내정가격보다 불과 10만원이 많은 4억3천10만원에 낙찰되어 사들였다.

曉星그룹이 재매입한 땅은 慶南梁山郡熊上面召周里산61의2등 임야 23필지 6만8천4백63평. 曉星그룹은 趙錫來회장명의의 이 땅은 82년7월5일 비업무용토지로 土開公 釜山지사에 2억3천1백10만원에 매도한뒤 같은해 11월24일 2억5천4백30만원에 부사원인 李東王씨 (曉星物産 釜山사무소장) 金淑洪씨 (曉星物産 釜山서무과장) 등 2명의 명의로재매입했다.

碧山그룹 (회장金仁得) 은 회장장남 金熙勇, 차남 熙喆씨 공동소유의 釜山海雲臺中洞9040의3등 대지 19필지 3천1백87평을 82년6월23일 비업무용 토지로 土開公 釜山지사에 3억5천4백10만원에 매도한뒤 같은해9월12일 金회장의 3남 熙璉씨를 비롯해서 사위 鄭榮鉉씨 며느리 許英子, 朴雪子씨등 가족 4명의 명의로 3억9천2백만원에 다시 매입했다. 당시 土開公의 매각 내정가격은 이보다 1백만원이 적은 3억9천1백만원이었다.

味元그룹의 재매입엔 약간의 사연이 있다. 味元의 땅은 내셔널프라스틱(사장 林彩洪) 본공장이 들어있는 釜山市大新洞2街54소재 2백41평. 이땅은 味元주식회사의 전신인 東亞化成이 들어있던 창업의 요람지. 味元그룹의 창업자인 林大洪회장의 선친이일제때 공장터를 잡았었는데 57년 林회장이 釜山市巨堤洞에서 味元회사를 창립하여 옮겨가면서 동생인 林彩洪씨에게 물려준것.

林彩洪사장은 이곳에 내셔널프라스틱의 전신인 영진화학을 설립, 66년 내셔널프라스틱으로 회사명을 고치면서 현재의 巨堤洞으로 이사하고 문제의 땅을 내셔널프라스틱 본공장으로 이용해왔었다. 그러나 이땅은 명의가 계속 林大洪씨로 되어있어 지난9·27조치때 味元의 비업무용으로 지적되어 土開公에넘어갔고, 林彩洪사장은 자기회사 본공장이자 味元그룹의 창업요람지가 남의손에 들어갈까봐 지난해8월 土開公 공매때 1억5천여만원에 사들였다는것이다.

이번 재매입사건의 초점은 해당 토지매매의 적법성여부를 떠나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판땅을 기업주의 가족이나 관련자를 내세워 다시 사들이는 기업경영풍토에있다. 기업이 되살정도로 욕심이 나는 땅이었다면 처음부터 업무용으로 이용했었다면 문제가 되게 없었다.

9·27조치에따라 기업이 土開公에 비업무용토지를 팔았을땐 판매대금을 토지채권으로받아 전액 금융기관의 대출상환에 쓰는대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었다. 따라서 극한적으로 말하면 이번 비업무용토지 재매입은 기업이나 기업주들이 개인명의로 갖고있는 땅을 이해관계인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부담없이 물려준셈이다.

문제된 토지를 소유자들이 일반적인 매매방식을통해 관계자들에게 팔았다면 25~35%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했고 증여나 상속을했더라면 최고60%까지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어야하는것이다.

또한 문제의 재매입 토지는 각기업들이 土開公에 매각한 땅 가운데서는 요지여서 딴사람이 나머지를 사도 그것만으로는 쓸모가 없도록 되어있는가하면, 자신들로서는 투자가치를 최대로 보장받을수있는곳만 골라 샀다는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과거 부의 수단으로 썼던 부동산투자형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다시말해 기업들이 아직도 재무구조 건실화보다는 투기성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수있다. 이번 재매입은 대부분이 개인명의로 구입했는데 자금흐름은 능력으로 보아 기업자금의 변태유출여부가 추점이 되고있다.

【崔相泰기자】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신현희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 셀본서쪽)

신문구독자 10명중 9명이
한국일보를 구독하는 이유는…
그리고 항상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일보가 매일매일 가장
열심히 만드는 일간신문이기때
문입니다.

가장 열심히 만드는 신문

"한국일보가 새로와졌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요즘 한국일보는 내용이 좋다."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신문"이라고 말해주는 독자도 적지 않읍니다.

한국일보가 과연 새로와진 것인지, 내용이 썩 좋아진 것인지 장담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일보가 ▲가장 많은 기자에 의해 ▲가장 열심히 만들어져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신문임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더한층의 애독을
부탁 드립니다.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월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동국대학교
83년도 회장단 명단
고문 천윤기(유임)(50 경제과)
회장 오창섭(60 경제과)
부회장 : 유영목(64 경제과)
부회장 : 조방주(58 국문과)
총무 : 김규철(70 정치외교과)
섭외 : 엄주익(66 상과)
문화 : 이정구(76 국문과)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植木日무색…山불 30건
5~6일 이틀동안 林野70ha 태워

【地方=綜合】식목일인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전국에서 30여건의 산불이발생, 정성들여 가꾼 수10만그루의 나무들이 타죽었다。이번불로 모두70여ha의 임야가 소실돼 식목주간을 무색케했다。

▲6일낮정오께 경기光明市鶴溫洞141 속칭 애기능에서 불이나 임야10만여평을 태우고 4시간만에 꺼졌다。

▲6일大邱市에서는2건의 산불이 발생, 하오4시현재 한곳에서는 계속 번지고있다。

이날낮 12시10분께 大邱市東區 안심출장소관내 각산동 뒷산에서 이마을 서병열씨(59)가 자기의 묵은땅을개간하기위해 마른 잡초를 태우다가 산불이났다。불이나자 소방관、예비군 마을주민등 7백여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펴고있으나하오4시현재 계속번지고있다。

또 이날 하오1시5분쯤에는 大邱市東區신무동 부인사서편 산에서 성묘를하던 김태일씨(26)가 켜놓은 촛불이 넘어지면서 잔디에 불이붙어 산불이 났으나 주민、예비군 공무원등 3백여명이출동 1시간만에 불길을 잡았다。이불로 1정보의 임야를태웠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목거리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江南 녹지대서 紀念植樹
金서울市長·張康在 본사會長등

◇金聖培 서울시장㊧과張康在 한국일보社회장㊨이 寒食인 6일 「한강푸른 나무심기운동」 기념식수를 했다。

金聖培서울시장과 張康在한국일보社회장은 寒食인 6일 서울江東區巖室 실내체육관옆 江南2路변 녹지대에서 식목일 기념식수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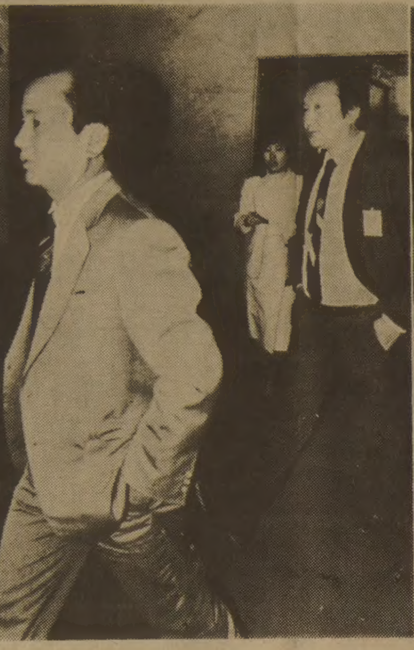
이날기념식수는 본사와 서울시가 지난79년이래 범시민운동으로 벌여온 한강푸른나무심기운동의 계속행사인데 금년에는 한강종합개발 사업으로인해 본격적인 식수작업이 어려워 보식과기념식수로 사업을 대신했다。

이날 식수행사에는 巖室1洞주민들과 서울시및 江東구청、한국일보 직원등 1백여명이 참석、녹지대에 진달래와 철쭉 1천여그루를 심었다。

본사와 서울시는 지난79년이래 범시민 캠페인을벌여 千戶洞―제2한강교간 한강남·북안의 72.5㎞구간에 꽃나무、가로수등 1백56만 4천7백89그루를 심었다。

檢察 保安　4企業 긴장　警察 술렁

土開公비위 아직 안드러나
捜査급피치…週末까지는 마무리



◇소환받은 不條理 의혹 ㊧검찰의 소환을 받은 曉星그룹부산사무소장 李東玉씨(49·左)와 서무과장 金淑弘씨(40·右)가 6일 상오 부산에서 상경, 대검중앙수사부로 들어가고있다。㊨역시 부산에서 올라온 金鍾圭씨(48·左)와 李相根씨(43)가 辛肇一과장실로 들어가고있다。【6일하오】

「토지再買入·폭행致死사건」 회오리

「철저수사」란는 金相浹국무총리의 지신는 검찰, 경찰, 일부 재벌회사에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켰다。

22만달러사건으로 한때 침체돼있던 검찰은 국민의신뢰회복을 의식한듯「철저한 보안」속에전력투구수사에 나섰고 사표를낸安應模치안본부장 후임에 李海鎭시경국장을 내정하는等 韓一합섬사건 뒷수습에 기동성을보인 경찰에는 침통한 분위기속에 「심기일전」의 빛이 나타나기시작했으며 간부들이 검찰에 소환된 4개재벌회사에서는 불똥이 『어떻게 될까』를 점치며 전전긍긍。

그러나 이 「회오리」는 국회가 열리는 내주초전, 금주말에는 모두 정리될 전망이다。

【檢察】검찰고위 당국자는 6일하오『토개공의 토지경매가격은 사들인값에 10~15%를 얹히는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만큼 토지를 팔았던 기업에서 내정가격을 쉽사리 알수있어 내정가격을 알아내기위한 토개공직원과의 결탁은 일단 없었던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金총장은 이어 『감사원과 치안본부 조사과정에서 토개공직원의 비위는 드러나지않은것으로 알고있다』면서도 『그러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토개공직원들을 소환, 수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金총장은 『6일아침부터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만큼 하루 이틀사이에 전모를 밝혀내기는 쉽지않지만 빠른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혀 주말인 9일까지는 공식발표가 있을것임을 암시했다。

검찰수사는 요즘와서 늘 그랬듯이 철저한 보완을 유지하는가운데 청사주변에 긴장감마저 감돌고있다。

"競賣내정價格은 예측가능 土開公직원도 소환해捜査"

검찰은 특히 국무총리가직접지시할만큼 사건이 「사회적」이란는점에서서 수사진행이 잘못알려지거나 증폭되는걸 우려하는것같았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李·張사건및 올해 연초부터 법조계를 강타했던 22만달러사건 파동으로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에메지를 회복하기위한 좋은기회로 삼는듯 진상을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각오가 뚜렷하다는 인상도 주었다。

검찰은 국민들의 의혹을 한시바삐 풀어주어야겠다는것과 임시국회가 개최되는 오는11일이전에 수사를 종결해야한다는「사정」때문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인상이 강했다。

검찰은 감사원과 치안본부로부터 조사자료를 넘겨받은 5일 하루종일 자료를 정밀조사하고 수사방향을 정하는등 조용하게 보냈으나 관련회사 임직원을 소환한 6일부터는 부산한 모습이다。

보도진들은 관련자들의 소환에대비, 6일 자정무렵까지 검찰청사 출입문을 지켰으나 金중앙수사부장이 『어떤일이 있어도 발표전에는 사람을 부르는일이 없을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철수。

그러나 소환된 기업관계자들은 기자들이 돌아간뒤인 6일 새벽 자진출두, 보도진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기자들은 金중앙수사부장이 6일 상오「10여명소환」을 공식발표한후에야 소환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다。

검찰의 철저한 보안때문에 공식발표외에는 수사과정의 노출이 거의안되는 상태인데다。

대언론창구는 金중앙수사부장한사람으로 제한하고 그밖의 수사관계자가 발설하면 『문책하겠다』는 강경한 방침。

한편 관련기업들이 토지재매입과정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의 「입찰방해죄」가 적용될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는데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의해 경매나 입찰의공정을 해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이 죄에 대해서는 지난76년대법원에서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 낙찰을 받았을경우 담합자간에 금품수수여부나 입찰실시자 (이 사건의경우 토개공) 의 이익이 침해됐는지의 여부에불구하고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내려져있다。

그러나 지난1월 대법원은 『경쟁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고 그에 따른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경쟁을 한것과 동일한 결과가 됐을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칠 위험성은 없다고 보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수없다』고 상반되는듯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새人事·조직改編놓고 어수선
이미지刷新에 心機一轉 다짐

【警察】한일합섬이사金根祖씨 폭행치사 사건이후 계속 침통해있던경찰위기는 6일 상오 安應模치안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한층더침통해졌다。

그러면서도 후임인사에 따른 수뇌이동과 수사대의문책인사、수사대와 특수수사대의개편등을놓고 설왕설래、어수선한 분위기다。

5일하오 귀국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던 安본부장은 6일상오 1·2·3·4부장들을 만 참석한 참모회의를 열고 사후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부장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채 무거웠다。

安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무부직원들도 말을잊었는데 李春九차관은 『조직의 한 책임자로서 가슴아픈일』이라고 말하고『경찰총수가 사고가일어날때마다 단명으로 물러나는것도 경찰발전의 저해요인이다』면서 애석한 표정。

한편 하오5시30분께 安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李海鎭서울시경국장이 후임본부장、시경국장에 朴培根치안본부4부장이 기용되자 경찰의 서열과능력을 최대한 살린 인사라면서 「심기일전」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번사태의 진원지가된 치안본부수사대의 인사관리 명칭 업무한계에대한 개선안을 놓고 경찰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국민에게 위화감을주는 「특수대」「수사대」등의명칭을바꿔야한다는 주장이강한데 수사1계 2계하는식으로 단순화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아예 치안본부의 수사기능을 일선 시·도경으로 이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또 특수대나 수사대요원을 자질과 실력위주로 선발, 교체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내부에서는 지난해 宜寧사건뒤 체질개선에 노력했는데도 이번에 또金根祖씨사건이 발생, 결국 치안총수가 물러나게되자 근본적인 대책이 서둘러져야 할것이라고입을 모으고있다。

한편 安본부장은 칠레방문길에나서기 이틀전인 지난달 25일 金이사폭행치사사건에 관한 전모를 보고받고 출국을 취소하려했다가 외교의전상 다녀오는게좋겠다는 상부의 뜻에따라 출국했던것으로 알려졌다。

"共謀나 결탁은없다" 主張
幹部들、부산한 대책熟議

【企業】한일합섬、효성、벽산、미원등 4개 업체들은 6일 상오 직원들이 동요할것을우려、사건내용을 설명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여는가하면 검찰수사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워 간부들이 사방에 전화를 걸어 정보수집을 하기도 했다。

관련기업들은 토지의 재매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입찰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 관계자들과 공모나 결탁한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中區西小門 동화빌딩에 있는 한일합섬 서울사무소에서는 6일 상오 과장급이상 전간부직원들이 사무실에모여 앞으로의 사태추이에대해서 의견을나누며 걱정을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본사 경리부장 金甲敏씨、서울사무소 경리과장 李武杰씨등이 검찰의 소환을받고 출두했으며 卞전무는 회사를 비우고 외출했다。

味元그룹계열의 주력회사인 서울道峰區放鶴洞7 서울미원주식회사도 6일상오9시30분께 林哲洙사장이 과장급이상직원 30여명을 소집、사건내용을 설명한뒤 사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근무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자리서 林사장은 『사건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것과는 많이 다르다。실제로 토지매입과 관련、수사를 받고있는 사람은 우리회사에 한명도없다』고 밝혔다。

林사장은 『내가 아는바로는 林大洪회장이 소유하고있던 부산西區東大新洞소재 2백41평을 비업무용토지로매각한후 공개입찰에서 동생인 내셔널프라스틱회장 林彩洪씨에게 낙찰된것과 관련、내셔널 프라스틱의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벽산그룹은 문제의땅이 사주인 金仁得회장 개인 소유이기때문에 그룹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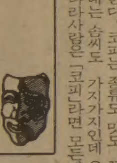
한관계자는 「문제가된 땅은 金회장과 그가족명의로되어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일을하고있다』고 전했다。

효성그룹은 6일상오 8시부터 鄭憲俊그룹부회장 방에서 尹瓊重사장등임원진들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숙의를 거듭했다。

이날 金允在부사장은 토지매입에관련된업무는 방계회사인 경남개발에서 취급했기때문에 잘모르겠다고말했다。

그룹조정실장 李鍾世전무도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못하고있다면서 궁금해 하는표정이었다。

코피의 魔術師
茶房주방서 20년 徐廷達씨
"그윽한 香氣외면 숭늉마시듯 해서야"



우리가 開花란는 이름아래서 양물결에 휩쓸려온 이래 코피만큼 생활속에 파고든 것도 없다。손님이 오면 대접을 하고 친구를 만나면 다방에 가며 자장면을 먹고도 그보다 비싼 코피를 마시게끔 되었다。

거의 반세기를 코피끓이는 일을 해온 徐廷達씨(61·M백화점 코피숍주방장·사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피를 너무 맹목적으로 마시는 경향이있다』고 논평한다。코피는 종류도 맛도 끓여내는 솜씨도 가지가지인데 우리나라사람은 「코피」라면 모든게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푸념이다。

14세때부터 코피향속에 파묻혀 살아온 그로서는 당연한 넋두리인지도 모른다。어려서 明洞의 코 일본인이 경영하던 다방에서 코피와 처대면한 그는 자신을「코피의마술사」라고 생각한다。徐씨의 손과 눈은 컴퓨터와 같다。돋보기안경너머로 원두가루의 빻아진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은 예술가의 표정을 빰친다。

이때문인지 그가일하는 다방에는 단골손님이 많다。지금도 멀리 安城이나 平澤에서까지 와서 보온병에 담아가는 사람도있다。

지금처럼 코피값이 협정가격으로 묶이기 전에는 産地가 다른 원두로 맛과향이 다른 13가지의 코피를 끓여낼때는 신바람이 났다。

徐씨가 일하는 주방은 흡사 한약방같다。탄자니아産 킬리만자로、브라질産 산토스、이디오피아産 목가、자바産 로브스터등 각종 코피가 즐비하다。徐씨는이 코피들을 혼합해서 「徐廷達식」코피를 손님앞에 내놓는다。

徐씨는 자신이 처음 원두코피를 한국에 소개했다는 긍지를 지니고 있다。일정때는 조선총독부 관리들이 그당시 귀한 원두를 얻으러오면 으쓱대기도 했다。

해방과 6·25동란을 거치는동안 코피가 일반화되고 다방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이같은 상황에서 독특한 솜씨를 알아주는 사람도 드물어 된장공장으로 외도도 해보았다。그러나 몸에밴 코피향을 잊지못해 다시 물장사로 돌아왔다。

『코피는 그윽한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코피학 제1조란다。【薛熙灌기자】

冥王星과 그衛星 5년동안 못본다
"太陽에 가려" 天文學者예언

【타슨(美애리조나)UPI聯合=特約】태양에서 가장먼 행성인 명왕성과 그주위를 도는 위성들이 오는겨울부터 5년동안 태양에가려져 日蝕에 들어간다고 한 천문학자가 예견했다。

천문학자인 제임즈·크라이스티박사와 클라이드·W·톰보그박사는 6일 이같이 밝히고 이日蝕으로 명왕성에관한 귀중한 자료를 얻을수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톰보그박사는 1930년 최초로 명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이며 크라이스티박사는 지난68년 그주변을 도는 위성을 발견했었다。

크라이스티박사는 명왕성의 일식이 1백24년을 주기로 일어나며 이日蝕을 통해 명왕성표면의 지도작성이 가능하고 그생성에관한 정보입수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5行뉴스

◆도둑누명 女工 추락중태

【釜山】도둑누명을쓴 여공이 기숙사 사감의 폭행과 학대를 견디다못해 기숙사5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은사실이 뒤늦게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상오7시20분께 부산시 北區華明洞1170 흥아공업유한회사 (대표 정효택·50) 도금부에서 일하는 李성자양 (20) 이 도둑누명을쓰고 높이15m의 기숙사 5층옥상에서 뛰어내리다 머리와 허리 다리등을 다쳐 北區周禮洞 한빛신경외과에 입원,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이다。【聯合】

◆딸때려 숨지자 암매장

【龜尾】경북 龜尾경찰서는 5일하오 말대꾸를하는 딸을 때려 숨지자 마을 뒷산에 암매장한 진정화씨 (57·龜尾市黃坪洞333) 를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聯合】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국내·외)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MING AND SYSTEMES ANALYSIS.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을 COBOL, RPGII, BASIC, ACCOUNTING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Mary Street,
5th Floor, Toronto, Ontario
Canada M4Y 1P9

道公、되살아났다

曉星에 역전승…決勝토너에

高麗證券도 쾌조의 2勝

실업배구聯盟戰 3일째

◇블로킹은 뚫었으나… 여자부B조 美都波와 泰光産業의 대결。泰光의 羅德順(12번)이 美都波 廣壽順(4번)이 만든 블로킹 벽을 뚫고 강타를 날리고 있다。美都波가 3-0으로 이겨 2승을 기록했다。

지난3월2일 道路公社사령탑을 넘겨받은 石泰煥감독이 첫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다。코칭스탭의 교체에 따른 진통때문에 지난번 종합선수권대회에 불참했던 道路公社는 이로써 한달만에 활기넘치는 승리팀으로 등장했다。

6일 장충체육관서 벌어진 실업배구 1차연맹전 3일째 경기에서 여자A조의 道路公社는 曉星에 3-1로 역전승、曉星이 2패로 예선탈락함에따라 現代와함께 6강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진출이 확정됐다。

여자B조서는 美都波가 전날 黃花善이 부상당해 결장한 泰光産業을 3-0으로 완파하고 2승을 기록、결선진출이 유력시되고있다。

한편 남자A조의 高麗證券은 서울市廳을 3-0으로 간단히 꺾고 2승을 올려 예선A조 수위팀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道公은 주전들이 모두 一信女商출신들로 이뤄졌다。元永織·李文姬등의 더블세트시스팀을 이루고 있지만 왼쪽 공격수 黃淵順도 여고시절세터출신이라 어느팀보다도 좋은 토스웍을 갖춘것이 특징。

첫세트서 11-7、13-9로 앞서던 道公은 曉星의 장신유망주 朴甲虎에게 블로킹과 왼쪽강타로 연속5점을내주며 순식간에 허물어져 첫세트를 2점차로 빼앗겼다。제2세트를 단4점만 허용하고 따냈던 道公은 제3세트막판에서도 진땀나는 추격전을 당했다。14-6을 기록했던 道公은 공수실책과 또다시 朴甲虎의 강연공에휘말려 대거8실점、14-14타이를 허용했다。

道公의 위기를 구해준것은 黃淵順。黃은 상대 블로킹을 제치는 통렬한 강타로 진땀나는 상황을 벗어났으며 상대 실책에 편승、듀스끝에 道公이 제3세트를 건져냈다。曉星은 마지막세트서 어이없이 허물어져 겨우9점만을 따냈다。

◇제3일전적
▲여자 A조
도로공사 3 (15-6 16-14 15-4 13-15) 1 효성
(1승) (2패)
▲동B조

킹스컵복싱 4일째

한국、4명 準決올라

金光善·李成穆·陳幸範·申俊燮、銅확보

【방콕=聯】한국은 5일밤 방콕의 후아마크실내체육관에서 속행된 제9회 킹스컵국제복싱대회 4일째 준준결승전에서 라이트 플라이급의 金光善(동국대)이 타이선수에게 일방적인 판정승을거두고 웰터급의 李成穆(원주농고)은 타이의 분탄에게、라이트급의 陳幸範(한국체대)은 타이의 롱가판에게각각 판정으로 이겼다。

또 미들급의 申俊燮(원광대)은 日本의 요꼬야마를2회RSC로 이겼다。

그러나 페더급의 文光植과 페더급의 鄭鎔範은 판정패、웰터급의 權吉文은 1회 K O패、미들급 李榮基는 2회 기권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4명의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 메달권에 들어섰다。

한국選手 판정승에 泰國관중 불만亂動

【방콕=聯】방콕의 후아마크실내경기장에서 5일밤 벌어진 제9회킹스컵 아마복싱선수권대회 4일째경기에서 한국의 陳幸範선수와 타이공군의 롱가판선수의 경기가끝난후 판정에 불만을 품은 2천여 타이관중이 난동을 부려 경기가 35분간중단되고 한국인이 집단대피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美國人 주심 모리슨씨가 3라운드에서 타이선수에게 감점을주어 한국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자 타이공군팀 코치간 롱밧씨가 주심에게 항의한순간 타이관중들이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테니스頂上」의 微笑 서울의 頂上테니스 대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회견하는 보리㊧와 코너즈。보리는『은퇴선언을 절대로 번복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테니스의 眞髓 선물″

보리·코너즈「頂上테니스」對決 앞서 記者회견

″선수생활 계속할 動機 이미잃어 은퇴宣言 번복은 생각한바 없다″ 보리

″앞으로 3년간은 테니스에 전념 아들 장래는 아들에게 맡기겠다″ 코너즈

서울에서 첫 정상의 대결을 벌이는 테니스황제 비외른·보리(26·스웨덴)와 지미·코너즈(30·미국)는 6일상오 하이야트호텔 테니스코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한국국민들에게 테니스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몬테카를로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보리는『절대 컴백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단언하고 뜻깊은 한국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라이벌은 기자회견을마친후 대회장인 잠실실내체육관으로 직행、낮12시부터 약 40분간 강도높은연습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내용。

─코너즈와의 서울대결에 대한 소감은。

▲보리=마지막 대회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멋진 플레이로 한국팬들께 보답하겠다。

─코너즈는 5일 한영리셉션후 추한 미대사관 코트에서 연습할계획이었는데 얼마나했는가。또 18시간의 긴 여행으로 피곤하지 않은가。

▲코너즈=연습을 하려 했으나 피곤해서 쭉쉬었다。시차때문에 조금 피곤하기는하지만 경기하는데는 조금도지장이없다。오랫동안 이런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은퇴하는 보리에게 이번 게임을 양보할수 없는가。

▲코너즈=우리는 한국팬들에게 테니스를 보여주기위해왔다。첫경기、마지막이고를 고려하지 않고 재미있고 훌륭한 게임을 하도록 온힘을 쏟겠다。

─빌리진·킹여사는 보리가 은퇴하더라도 곧 마음이 변해 컴백하고 말것이라고예언했는데。

▲보리=지금의 생각으로는 은퇴의사를 번복할것같지 않다。킹여사는 한번 은퇴한후 테니스의 매력을 못잊고 컴백했지만 나는 그런일을 되풀이하지 않을것이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인가。

▲보리=아니다。그전만큼 테니스경기가 즐겁지 않기때문이다。테니스선수를 계속해야할 동기를 잃은셈이다。

─코너즈는 아들 브레트(3)를 아버지와같은 테니스스타로 키울생각은 없는가。

▲코너즈=본인의 의사에 따르겠다。테니스선수를 희망하면 테니스를 가르치겠고 법률가나 의사가 되겠다면 그쪽으로 밀어주겠다。

─코너즈도 멀지않아 만31세가 된다。

▲코너즈=언젠가는 보리처럼 은퇴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금년에도 4대빅타이틀을 획득(지난해는 윔블던、US오픈우승)에 자신이 있다。앞으로 3년간은 아무생각하지않고 테니스에만 전념하겠다。【徐興植기자】

프로야구

連勝 三美、靑龍에 덜미

河基龍 역투에 强打線 잠잠

1-0

【仁川=方錫帥기자】선배에 대한 예우가 지나쳤던 것일까。三美에이스 張明夫는 6일 仁川 홈구장서 벌어진 프로야구 MBC와의 첫경기서 日本프로야구 선배인 MBC 감독겸 4번 白仁天에게 무심코 던진 투구가 좌전안타가 되면서 위기를 자초하여 끝내 결승 1점을 허용、뼈아픈 첫패배를 기록했다。

홈구장서의 승리를 다짐하며 선발로 나선 張明夫는 4회까지 3개의 안타를 허용했으나 더블플레이로 위기를 모면했다。그러나 5회초 선두로 나온 白仁天에게 중전안타、5번 李鍾道에게 보내기번트、6번 金貞洙에게좌전 결승타를 맞았다。

張明夫는 이날 9회동안 30타자를 맞아 8안타、2삼진、1실점、1자책점을 기록했다。

釜山원정경기에서 롯데에이스 崔東原을 KO시키고 2연승을 거두었던 三美의 장타선은 이날 따라 MBC 에이스 河基龍의 역투에 말려 산발4안타로 압도당했다。

河基龍은 9회동안 34타자를맞아 4안타 2포볼 3삼진을 기록하며 완봉승、1승1패를 기록했다。

MBC의 1번타자로 타순을바꾼 金在博은 이날4회초 절묘한 세이프티 번트를 성공시키는등 4타수4안타를 기록、3게임서 12타수6안타의 좋은 타격을 보였다。

MBC의 河基龍은 이날자기량을 십분 발휘했다。우완의 河基龍은 좋은 컨트롤로 三美강타자들의 무릎부분을 찔렀다。

2차전까지 팀타율 3할3푼3리를 기록했던 三美타선은 河基龍의 호투에 눌려 5번鄭求憲의 2루타1개를 포함한 4안타로 주저앉았다。

三美의 張明夫는 1점밖에 내주지않은 호투를했으나 주력타선의 불발로 패전투수가 됐다。

MBC는 5회초 선두지명타자 4번白仁天이 張明夫의 失投를 틈타 좌전안타로 출루、李鍾道의 보내기 번트에 이어 6번金貞洙의 좌전적시타로 결승점을 올렸다。

◇6일전적
◆인천

MBC (2승2패)	000	010	000	1
삼미 (2승1패)	000	000	000	0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張吉山 <1710>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70)

정호명의 집에서 정만일과 김시동 황회 정원태는 밤을 새우며 얘기를 나누었고、사촌 아우의 뒤를 따라 검계와 미륵도의 향도로 들게된 정호명은 최장군이라는 별칭을 얻어듣게 되었다。

칠성암 큰 재 때에는 그들이 늘 말해온대로 미륵도라는 과육(果肉)을 검계라는 중핵(中核)위에 겨죽을 싼다는 격식이 갖추어졌다。여환이 미륵도의 종사(宗師)를、만신 계화가 수보살、그리고 황회가 대덕(大德)、혜음령 중길이네 살주계 식구들이 보변 최영길은 혜음령 상좌를、정호명이 양주의 상좌、정만일이 영평의 상좌、전성달이 삭녕 상좌등을 맡았으며 파주의 묘옥이 이경순에 대신하여 수보살이 되었다。시내비골 사람들을 모두와 파주、양주、적성、영평、연천、삭녕 사람들이 재에 참예하니 소문을 듣고 몰려든 인파가 거의 천여명에 이르렀다。

칠성암의 주봉은 감악산(紺岳山)이니 영근산은 그 한 지맥인 셈이었다。감악산은 풍수로 살펴도 그조종(祖宗)이 귀하고、그를 둘러싸고 호종하는 산이 두텁고、앞뒤가 상응(相應)하고、봉우리가 단정하며、한탄강의 푸른물을 굽어보니 징과와 합수(合水)되어 복룡(福龍)이 되는셈이라 예로부터 송도의 덕물산과 더불어 성산(聖山)으로 알려져 왔다。영조산의 구름을 넘자마자 감악산주봉을 중심으로 마차산(磨次山) 설마치(雪馬峙) 옥녀봉산(玉女峰山) 등의 능선이 울타리처럼 둘러선가운데 아늑하게 내려앉은 들이 시오리쯤 펼쳐져있었다。이쪽의 솔밭 아무데나 멍석차일을 치면 수백명이 늡고 일어나고 뛰어도 흔적이 보이지않을만 하였다。

칠성암 큰 재는 암자에서 모두 치를 수가 없어서 아예 감악산 들로 나아가 노천에다 솥을 걸고 차일을 치고하였다。만신 계화、황회의 아내인 영평의 금방울 만신、계화의 남편 박수 김승운 등이 굿을 벌이는 것을 처음으로 하여 여환 스님이 미륵님께 치성을 드리고 설법하였고、만신들과 장군사의 전성달네 광대패들이 무 향도들과 어울려 한바탕 질펀하게 무감을 놓았다。그동안에 정호명과 정원태는 재에 참예한 사람들의 거주지 성명을 일일이 적어 두었으니 천 여명이나 되었다。재가 끝나고나서 각 지역의 상좌들과 검계의 핵심이 모여앉아 여환이 언문 토를 단 신서(神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호남간지에 깨알처럼 써내려간 신서의 첫 머리에는 수 當改世 彌勒出來 라고 씌어 있었다。

시속이 僧不敬佛하고 俗不敬佛하니 이같은때에는 龍이 아들을 낳아 主國한는데 風雨不調하고 오곡이 不成하여 民人이 모두 굶어 죽고 彌勒이 현신한다。

이와같이 미륵이 꼭 나타나게 될 금세를 밝혀 놓고나서 감결(鑑訣)을 적어 두었으니、이는 왜란과 호란을 전후하여 여러 지방에서 책자가 나돌아 다녔고 뜻을 알고 모르고 간에 널리 베껴서 백성들의 손에 옮겨졌던 터였다。

천지(天地)에는 음양(陰陽)이 먼저 주장 되는도다。곤륜산(崑崙山)으로 부터 온 맥(脈)이 백두산(白頭山)에 이르고 원기(元氣)가 평양에 이르렀으나 평양은 이미 천년의 운수가 지나고 송악(松岳)으로 옮겨져서 오백년 도읍할 땅이 되나 요망한 중과 궁녀가 난을 꾸미고 땅 기운이 쇠패(衰敗)하고 하늘 운수가 비색(否塞)하여지면 운수는 한양(漢陽)으로 옮길 것이다。전쟁은 평정되지 않고 충신은 죽었으니 건곤(乾坤)이 긴밤중이로다。

후나孃 亡命허용 臺灣人權委 환영

【臺北CNA=聯】杭立武自由中國인권위원회 위원장은 5일 美國정부가 中共의 테니스선수 후나양의 정치적망명을 허용한조처를 찬양하는 전문을 엘리어트·에이브럼즈 인권중요담당차관보에게 보냈다。

이 전문에서 杭立武위원장은『이번조처는레이건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운동의 강화를뒷받침하는 것일뿐아니라 美國은 어떤종류의 국제적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것이다』라고 말했다。

땅끝에서오다 <25>

金成一 作.

뭔가 일어난다⑧

시나가와 55노 15-64의 베이지색 승용차는 체이서가 아니라 스타레트였다。그리고 지금도 중고차스토크 야드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런 밤코트의 사나이가 타고 있던 베이지색 체이서는 시나가와 55노 15-64가 아니었다。그차는 가짜번호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수고했어、요꼬야마상。당신에게 부탁하면 언제나 틀림 없거든』

노오란 텔렉스 용지가 춘호의 책상 앞으로 전달되었다。파리 지사로부터의 답신이었다。

─담지사 요원 3명이 샤를·드골공항까지 전송하였으며 이세원부장이 디파처 게이트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귀사 하였음。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파리 지사장。

인원이 부족하여 젊은 부장 한 사람을 전송하는데 3명씩이나 동원했다면 대단한 배려였다。어쨌든 샤를·드골 공항에서 이세원 부장은 디파처 게이트로 들어간 것이 틀림 없었다。그러므로 그가 실종된 것은 디파처 게이트 이후인 것이다。그러므로 그가 사라질수 있는 장소는 샤를·드골공항의 출국수속창구 이후에서 대합실、그리고 암스테르담공항 앵커리지의 대기실、그리고 나리따 공항의 입국 수속 창구 까지인 것이다。

텔렉스가 또 들어왔다。

─이 세원 부장에 관한 건。그는 당 지사에 들른 적도 연락한 적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암스테르담지사장。

그는 분명히 안개 속에 있었다。그는 어디로 사라졌는가。하늘로 솟았는가。땅 속으로 꺼져버렸는가。

(차라리 결혼 전에 꺼져버렸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런 낭만적인 공상을 하고 있을 형편이 아니었다。

『저… 우에다상』

우에다 구미꼬가 고개를 들었다。아직도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KE001로 예약되었어요』

『고마와、그리고… 혹시 어제 오후 파리에서 들어온 JL404에 탑승했던 스튜어디스중의 하나를 찾아낼수 있을까?』

『이젠 그쪽으로 취향이 바뀌셨나요?』

구미꼬는 빈정거리는 투로 그렇게 말했다。

『우에다상、이건 공식적인 일이야。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토요일 오후 한시 파리를 출발한때 보딩패스를 받고나서 비행기를 안탄 손님이 없었는가 알아봐주면 좋겠어』

『알았어요』

어째서 구미꼬가 빈정거리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다가 춘호는 이내 그것을 알아차리고 수화기를 놓았다。먼길을 가는데 스미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그는 지께이의대(慈惠醫大) 부속병원의 전화번호를 천천히 눌러가고 있었다。신호가 가고 있었다。

『아、지께이의대 부속병원이지요?』

그는 일부러 구미꼬에게 들으라는듯 큰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길

◇韓景職◇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새로 개척전도를 한 리빙스턴이 읽은 유명한 성경말씀이 있다。그것은 마태복음28장 마지막 세절이다。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전에『하늘과땅의 모든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면서『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하셨다。

리빙스턴이 이말씀을 읽을때에 이런생각이 들었다고 한다。『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진실한 사람이다。예수님은 거짓말을 할수없어 예수님은 글자 그대로 신이야。세상의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되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할수 없어。그런 까닭에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겠다。내가 아프리카에 가면 주님께서 같이 계셨것이 분명하다』

이 확신가운데 담대히 고국을 등지고 암흑의 대륙에 가서 일생을 고독한 생활을 했다。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같이였다。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동행했다。주님이 격려했고 힘주셨다。

주간女性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알찬 서비스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읍니다.

대한항공은 주 23회의 편리한 스케쥴로 가장 빠르게 미국과 한국을 직결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11편, 뉴욕에서 주4편, 호놀루루에서 주 8편씩 서울로 직행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뿐입니다.

모국을 방문하실 때는 어느 항공사보다 편리한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을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로스앤젤리스➡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11	월·수·토	14:00	화·목·일	18:40	NONSTOP
KE015	화·목·금·일	23:30	목·토·일·화	06:20	앵커리지
KE001	화·목·토·일	10:00	수·금·일·월	19:30	호노루루 · 東京

뉴 욕➡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07	화·목·금·일	23:50	목·토·일·화	06:00	앵커리지

호노루루➡서울

편명	출발		도착		경유지
KE050	월·수·금·일	01:40	화·목·토·월	06:10	NONSTOP
KE001	화·목·토·일	13:30	수·금·일·월	19:30	東京

* 모든 시간은 현지시간 임
*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KAL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現代史의 現場

㉒

題字 原谷 金基昇

샌프란시스코의 銃聲3發

張仁煥·田明雲 義士

親日 妄言의 스티븐스를 狙擊
日의 武力강점 美國땅서 고발

한말 나라가 쓰러져가는 비통함에서 분연히일어나 미국인 外交고문을 쏘아죽이고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을 고발한 두 애국지사 장인환과 전명운. 1908년5월22일 상오9시30분, 샌프란시스코 페리정거장에서 세발의 총성이 울려퍼졌다. 워싱턴 DC로 출발하기위해 배를타려고 막 도착한 구 한국외교고문 스티븐스가 쓰러졌고 곧이어 청년 田明雲도 넘어졌다. 때아닌 총소리에 모두가 놀랐고 순식간에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스티븐스를 향해 세발을 쏜 張仁煥은 긴급출동한 桑港경찰국 제임즈·맥로우스포스투수사관에 체포되었고 가슴에 2발을맞은 스티븐스와 어깨에부상을입은 田明雲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지는 백주에 한東洋人이 白人을저격한 이사건을 大書特筆했고 日本현지에서는 호외까지 낼 정도로 민감했다. 2일 후에 스티븐스(54세)가 죽음으로써 韓·美·日의 정치적 배경, 이해관계가 꼬리를 물고 밝혀진다. 소위 말하는『스티븐스사건』의 주인공인 美國人 드와함와이트·스티븐스란 어떤 인물인가. 그는 1885년부터 日本에 주재하며 外交자문을 해주었고 1904년 日本의 추천으로 高宗皇帝의 승인을받고 韓末外交고문이 되었다. 1905年 乙巳保護條約後 스티븐스는 일본의 大韓합방의 당위를 알리기위해 워싱턴政府를 설득시키려고 1908년5월21일 밀명을 띠고 桑港에 到着했다.

그는 크로니클지와 인터뷰를 통해『日本의 한국통치는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되며 한국민이 모두 바라는 바다』라는 妄言을 했다. 이당시桑港에는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으로 왔던 노동자와 초기유학생 우국지사등 1백50여명이 살고있었고 共立協會와大同保國會라는 단체도 태동하고있었다. 상항 한인감리교회도 세워졌고 望鄕의 설움을한자리에달래기도할때다.

스티븐스의 친일발언은 곧 잔잔하던 韓人社會에 큰파문을 일으킨다.

3월22일 文讜稷·鄭在觀·李學鉉·崔正益등이 그가묵고있던 페어몬트호텔로 찾아가 정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뜻을 굽히지를 않았다. 鄭在觀은 분을 참지못해 의자를 들어쳤고, 경찰까지 동원되었지만 韓人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은 돌아갔다.

이들은 다시 대책을협의하기위해 共立協會회의장으로로 돌아왔고 밤늦도록 토론을벌였다. 이자리에 있던 혈기가 왕성한 20代의 田明雲은「내가 해치워버리겠다」고 나섰고 張仁煥 (당시32세)은 묵묵히 뒤에서 듣고만 있었다는 뒷이야기도있다. 이들은 다음날 스티븐스가 워싱턴으로 급히 간다는것을알아냈다. 또 대통령을 만나기위해 페리정류장으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한채 헤어졌다.

날이 밝았고 田明雲은 현장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스티븐스가 車에서 내리는것을 향해 쏘았으나 불발. 權총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는 참나였다. 張仁煥이 곧이어 저격을감행한 것이었다. 순간속에서 歷史의 주인공이 바뀌었고 운명의가는길도 달라졌다. 경찰은 암살의 주범으로 張仁煥을, 그리고 공범자로 田明雲을 구속했고, 두 義士를 분리해서세상을놀라게한재판을시작했다.

이사건은 당시 桑港地方法院12호 法廷 (재판장 Car-의 Cook)에서 3월27일첫 인정신문이열렸고 檢察側을 대표해서 벤저민·블룩, 사무엘·나이트, 벤저민·헨리등 세검사가 맡았다. 한편 변호사로는 나탄·코크란,로버트·페렐 그리고 베렛이 代辯을 했다. 한편 어깨의 총상치료를 마친 田明雲에 대한 첫재판도 4월3일 처음열렸다.

張仁煥·田明雲義士에대한 이 재판은 처음부터『단순한 살인』과『애국심에서 나온 행위』로 攻防이펼쳐졌고 無罪와 死刑을놓고 열변을 토했다. 金元龍著 在美韓人50年史에 기록된 베렛변호사의 변론은 다음과같았다.

『오늘 이 재판은 權勢가 진 日本과 亡命客 張仁煥간에 有無罪를 판결하는 재판이다. 고금 역사에 이러한것이 없는것은 아니다. 이사건은국제 관계로 일어난것이나 우리는 공정한 중재를 해야할것이다.

우리가 먼저 분별할것은죄의 등분이며 罪의 원인을 먼저생각해야 할것이다』. 또 다른 辯護士카클린은 배심관을 향하여『평결에 심사숙고해주시오. 만일 우리가 張仁煥을 죽이면 그사람은 公理를주장한 愛國者인 까닭에죽는것이니 그것이 옳은일인가, 愛國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義로운일인가를 먼저생각해야합니다』

한편 田明雲은 첫재판에서 다음과같은 所信을 밝혔다.

『日本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아라사와戰爭을 한다고 공언하더니 끝내 우리의 국권을 빼앗고 토지를 약탈했다. 부녀자를 강간하며 財政을 말리고 高官職을 차지했으며 憲兵 巡檢이 京鄕各地에 가득하다.

그들은 우리의 설명을 없애고 자유행동을 못하게했다. 나는 美國으로와서 學業을 닦아가지고 大韓에 헌신하기로決心했는데스티븐스가 한국의녹을 먹는 자로 日本을찬조하며 우리 祖國을 배반하는 일을했다. 나는 愛國心으로 그놈을 포살하려고 다기에 육혈포와 그놈의 사진을 가지고 선창에서 기다렸다. 마침 그가 車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銃을 쏘았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으므로 터빌을 넘다 내리쳤고 상황이 급박하여 도망하려고 한 것이다. 뒤에서 銃소리가 났으며 나는 前에는 張仁煥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샌프란시스코 韓人은 물론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멀리 멕시코에 노동자로 나가있는 교포까지 재판에 귀를 기울였고 변호비를 속속 보내왔다. 이 애국재판에 모아진 성금만도 모두 7천여달러나 된다.

張仁煥·田明雲 裁判後援會(會長 白一圭)가 구성되었고 張의사통역은 남가주대학유학생이던 申興雨씨가,그리고 田의사통역은 梁柱三목사가 맡는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원을 했다.

田明雲義士는 1908년 6월27일 사건발생 97일만에 구속에서 보석이 허용되었다. 또 그가 스티븐스를 때렸다는 것도 본사람이 없다고 無罪를내렸다. 그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당시 과열된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이해 가을 海參威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위해 상항을 떠나기로 한다 (『못잊어 華麗江山』을 쓴 郭林大씨는 잠시 뉴욕으로가 있었다고 주장)。

한편 張仁煥義士는 1908년12월22일 12명의 배심원으로부터『애국적 살인에 의한 2級殺人 (Insane Delusion)』평결을 받는다.

이는 변호인단의 승리였고 美洲韓人들의 성원이 결실을 본것이다.다음해인 1909년1월2일 캐롤·쿠크판사는 종신형인 25년 금고형을 내리고 加州에서 가장 경비가 심한 샌퀸틴형무소에 수감을 명령한다 (차이나타운사건의 이청수가 한때 수감되어 있던 곳으로 한인들에게는잘 알려져 있다).

「韓末義士 張仁煥」을 지은 김강씨는 최후진술을다음과같이했다고기술해놓았다.

『25年은 긴 歲月이다. 그동안에 변하는세상은 어떻게될까. 내가 25年을 못채우고 죽을는지 어떻게아나. 친구여 부디 한가지기술을 배워가지고 곧 조국에 돌아가 만인에게 평등한 자유의 새民主大韓을 건설하라. 이것이 나의 최후 부탁이다』

만약 그가 한국이나 중국 또는 日本內에서 스티븐스를 죽였다면 분명 刑場의 이슬로 사라졌을것이다.

罪囚번호23295호를단 張仁煥은 젊음을 묻어버리는 受刑生活을 시작한다. 언제나 품행이 단정하며 일요일에는 獄中敎會에 나간다. 카피트짜는일과 세탁기술도 이때에 배운다 (그는 평소에도 술과 담배를 안했음).

변호인은 1914년·1916년·1917년 세차례에 걸쳐 假釋放청원서를 내지만 모두 부결. 1919년 1월17일 만10년8개월간의 在所生活을 끝내고 그는自由의몸이된다. 여기서 잠시 張仁煥·田明雲義士가 어떻게 美國에왔는지 살펴본다.

張仁煥은 1876년3월10일 平南평양군 대동면에서 출생, 아버지는 장명구씨 어머니는 김씨 (이기록은 샌퀸틴형무소에서 나온 것임)로 6살때 어머니가, 16살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

그는 1906년7월 桑港으로 옮겨졌고 철도일과 알래스카어장에도 다녀왔다. 상항한인감리교회창설교인이었으며 산호제이에있는 브라운기술학교에서 일을하다 스티븐스사건의주역이된것이다.

또한 田明雲은 1884년 5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는 천성이 영민하고 용감하여서 남의 일이라도 不義를 보면 달려들어 싸우기도 했다. 그는 1905년 하와이농장에 이민을왔고 1906년8월 桑港으로 移住를 했다. 田明雲은 共立協會會員이 되었으며 철도공사장과 알래스카 漁場에서도 품을 팔았다.

한편 출옥한 張仁煥은 1923年 대한인국민회(총회장 崔鎭河) 부회장도지낸다. 주위의 도움으로 세탁소를 경영하던 張仁煥에게 玉의티와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는 1927년4월20일 (51세때)샌프란시스코일본영사관에가서 日本人會에 등록을하고 한국에 나간다. 日本人여권을 받는다. 그는 23년만에 고향 平壤을 찾았고 감리교정의 학교를 나온 尹씨와 결혼을했다. 장의사는 얼마후 상항으로 돌아왔고 尹女人은 장의사에게 平壤서 나와 살라고 독촉편지를 보냈다. 그는 상심을 하게되고 경제적 사정도 이때 좋지가 않았다. 끝내 그는 病이들었고 1930년5월22일 샌프란시스코에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창밖으로 뛰어내려 自殺을한다. 향년54세. 美洲內 애국지사1호 張仁煥義士. 그는 1975년8월3일 대한민국정부의 해외애국지사묘소의 이장계획에 따라 지금은 동작동국립묘지에 말없이잠들어있다.

한편 田明雲의사는 시베리아旅行을 다녀온뒤 농장을찾아나가 노동을했다. 1920년께 주순기씨 (또다른 표기는 추씨) 와 결혼을 했고 1921년9월2일 맏딸 전경숙양 (영어명 Rosemary Chun)이 태어났고 1923년5월10일에는 둘째딸 전경용양 (영어명 Margaret Chun)이,그리고1928년 외아들인 알프레드가 각각출생. 田明雲義士는 1908년 스티븐스사건후 이름을 Mack Fields로고쳤는데이는신변의 위협을 느꼈기때문이라고가족들은말하고있다.

현재 맏딸 (62세)은 李泰模씨 (초기유학생)와 결혼, 2남2녀를 두었으며 은퇴후 조용하게노후를보내고있다. 또한 둘째딸 (현재61세)은 表漢奎씨와 결혼해서 살고있는데 그는 가톨릭 고아원에서 자란동안 修女가 되었고 1960년대 10년간은 인천·부산등지에 근무를 했었다. 지금은 홀트양자회 남가주 지부책임자 (사회사업가임)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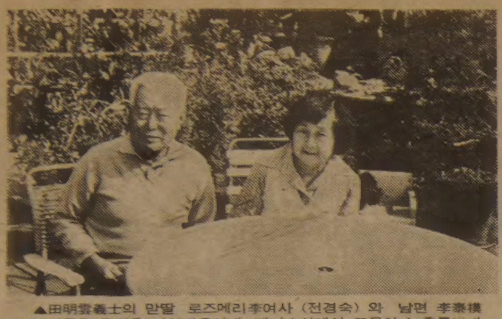
田의사는 나성에서 세탁소도 했고 나성시청의 건물정비관계 일도 맡는등 노후를 보내다가 1947년11월19일하오 노인아파트에서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장지는 나성시내 천주교묘지인데 이곳에는 7살때 세상을 떠난 맏아들 알프레드와 함께 조용히 잠들어있다.

비명에는『사랑하는 아버지 Mack Fields 1884~1947』이라고 적혀있다. 【LA支社=閔丙用기자】

▲張仁煥·田明雲의사의 劇的對面. 張仁煥의사㊨가 11년의 獄苦를 마치고나온 1923년, 대한여자애국단은 두義士를 위한 환영연을 베풀었다. 이사진은 상항에 75년간 거주했던 양주은옹 (작고) 이 소장하고 있던것이다.

◇田明雲義士의 墓碑. 현재 나성교외 천주교교인묘지에 묻혀있다. 사건발생후 전의사는 신변에 위협을느껴 이름을 영어로 Mack Fields로 고쳤다.



▲田明雲義士의 맏딸 로즈메리李여사 (전경숙) 와 남편 李泰模씨. 이들은 은퇴후 나성카운티내 베니스시에서 조용히 노후를보내고있다. 2남2녀의 자녀가있다. 로즈메리여사는 올해62세.

波瀾속의 후예들

張의사 代끊기고, 田의사 두딸만 生存…美서 6旬

역사적으로 큰 사건의 주역이었던 인물들의가정이 파란을 겪는것처럼 스티븐스 저격에 직접 나섰던 張仁煥·田明雲義士의 後裔들도 결코 평탄한 길만을 가지는 못했다.

張仁煥義士, 그는 1927년 고향인 평양에 나가서 젊은 尹씨와 결혼을 하고 돌아왔다. 부인尹씨는 평양에서 살자고했고 장인환씨는 美國에서 살기를 바랐다. 신병과 傷心으로얼룩진 張義士는 자살로 生을 마치므로 그 代가 끊겨버렸다.

그러나 田明雲의사는 저격혐의가 풀려졌고 자유로운삶에서 주순기씨 (영문으로 추자로 발음할수도 있음)와결혼을했고 새자녀가 태어날때까지는 행복한 가정을 지켰다.

항상 그는 큰 사건에 主役이었다는점에서 사회의 눈초리를 의식해야하고 이름도 영어로 바꾸는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편모도 보였다. 雪上加霜으로 夫人이 먼저세상을 떠나자 田義士는 가정적으로 불우함을 벗어나지못했고 그후에인세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지를 못했다.

전의사의 외아들인 알프레드는 불행하게 7살때인1935년 먼저 가버렸고 맏딸 로즈메리田양과 둘째딸 마가렛田양은 양부모집에서 자라다가 LA에있는 天主敎敎會 고아원에서 성장을 한다. 맏딸은 잠시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았지만 둘째는 단 한번도 아버지와함께 산적이 없을 정도.

이제 맏딸은 62세의할머니로, 그리고 둘째딸도 올해로 60의 나이가 되었다. 田明雲義士의 핏줄을 타고났다는 그들을만나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1977년부터인터뷰나 아버지에 대한 옛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지만 두 자매는 한결같이『NO』만을 되풀이 했다.

1983년2월 두딸을 잘 아는 초가이민자의 소개로 겨우 먼저 맏딸을 만날 수가 있었다.

맏딸인 로즈메리李女史는 지금 LA에서 25마일쯤 떨어져 있는 베니스市에서 남편인 초기유학생 李泰模씨와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생전에 나에게도 스티븐스사건에 관한 것은 한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우리들이 고아원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는 불경기로 농장에 일을 찾아 나가 있었어요』

우리말은 하지를 못한다.

단지 아버지가 일본사람을 싫어해서 주말이면 고아원으로 와서 함께 중국타운에 가서 식사를 한적은 여러번 있었다고 들려주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건국의 애국자」로 추앙을 받고있다는 것에도 머리를 갸우뚱했다.

큰딸의 아버지에대한 또다른 기억은「친구들이 많아서 자주 어울려다녔다」는 것이라고 설명. 그녀는『아버지에 대해서 아는것은 정말 없다』고 강조. 남편 이태모씨는 올해 79세로평양숭실을나왔고 미국유학을 마친뒤 영화비즈니스등에 종사하며 젊음을 보냈다.

子女 (전의사의 손자손녀)는 맏딸이 카렌·리(Karen Lee·남편인 Roger Farthing)둘째딸이 자네트·리 (Janet Lee·남편 Steven Raiser) 맏아들이 리처드·리 (Richard Lee) 막내아들이 대니스·리(Dannis Lee)。

한편 둘째딸 마가렛田여사는 가톨릭고아원에서 자란뒤 메리놀수녀학교를 나왔고 수녀가 되었다. 1960년대 한국에 파견되어 나가서 인천 목포 부산등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이때 현재의 남편 表漢奎씨 (현재LA서 부동산업)를 만났고 수녀에서 파계를한뒤 결혼을 한것.

그녀는 현재는 홀트양자회 남가주지부 (사무실 Lakewood에 있음) 책임자로 있다.

지난2월22일 사무실에서 본기자를 처음 만났을때 답변은 한결같이『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다』고 되풀이만을 했다. 특히 1948년 아버지가 나성에서 별세할때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다고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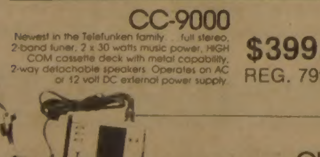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한번도 들은일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LA支社=閔丙用기자】

TELEFUNKEN
SUPER SPECIAL SALE

NOW ONLY
$ 3499.00
Reg. $5,000 or less

Studio 1M Hi Fi
The ultimate in portable stereo sound 2 x 60 watts music power. 4-band tun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detachable 3-way speakers. Operates on AC, 12 volt car/marine battery, regular and rechargeable batteries.
$699.00
REG. 1295.00



CC-9000
Newest in the Telefunken family... full stereo, 2-band tuner, 2 x 30 watts music power, HIGH COM cassette deck with metal capability, 2-way detachable speakers. Operates on AC or 12 volt DC external power supply.
$399.00
REG. 799.00

CF-100
Portable stereo cassette player and FM radio in one compact unit! Pre-select any three FM stations and choose by pushbutton. Plays all tapes including metal. Supplied with carrying case, headphones, demo cassette and batteries.
$99.95
REG. 239.95

STEREOKING
Audio - Video - Sales &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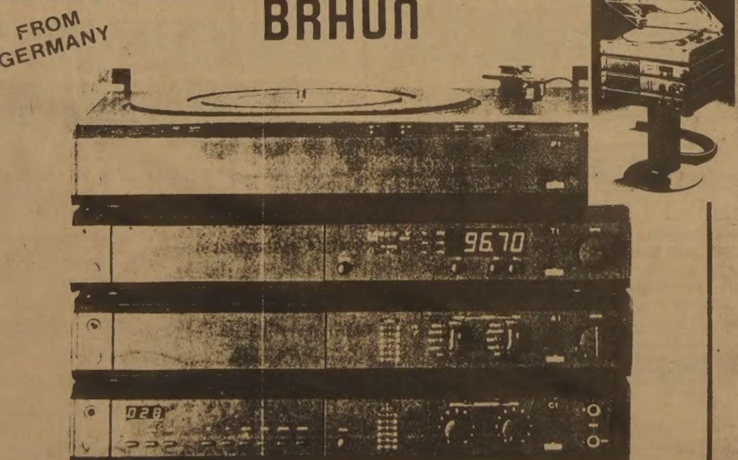
AKG
AIWA
SANSUI
SHERWOOD
S.A.E.

SHARP
TELEFUNKEN
GRUNDIG
NORDMENDE
INFINITY
JEN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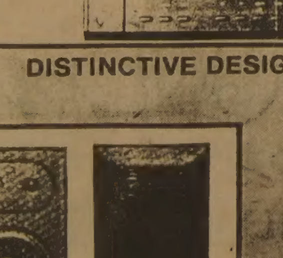
N / W / E / S — Dundas St. — Pacific Ave. — Keele St.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PHONE: (416) 766-4770
김 봉 훈

BRAUN
PRESENTS
THE AWARD WINNING
BRAUN SLIM LINE STEREO COMPONENTS
BRAUN
FROM GERMANY



DISTINCTIVE DESIGN FROM ANY POINT OF VIEW



FEATURES:

BRAUN P-1 TURNTABLE: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N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C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8070 HE SPEAKERS: 3 WAY SPEAKERS WITH 70 WATTS HANDLING CAPACITY.

WE INVITE YOU TO VIEW THIS IMPRESSIVE BRAUN COMPONENT SYSTEM AT:

Audio - Video - Sales & Service
STEREOKING
2989 Dundas St., West
Toronto, Ont. M6P 1Z4
766-4770

아세아 한약방

-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아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경험있는 지펑이 잡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사시는 분 환영
전화: 533–7759 Mr, 박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전화 : 622–2643

가정살림 도와주실분 구함,
전화 : 663–1941 Mr, 서

Video Movie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함, 영어와 한국어 잘 하시는 분, (Warden & Sheppard 지역)
전화: (B)494–7830, (R)925–1331(밤)

재봉사 구함,
재봉사 풀타임(경험) Piece work $4,50~$5,00
전화 : 368–2819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10개월된 애기·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6–1212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급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221 Ellesmere Rd,(Warden 서쪽)
전화 : 444–2211 Hamamoto Japanese Restaurant

꽃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남자헬퍼 구함,
전화 : 485–9419

화장품 쎄일즈 하실분 구함,

연간 4억달러 이상의 화장용류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일본공사(Japanese Corporation)는 캐나다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1층 점포를 마련하고 외판원을 구합니다.
화장품 계통으로 흥미나 장래를 꾸미고 싶으신 분 연락하세요. 좋은 대우.
★인터뷰 희망자는 전화 : 364–8932 Carol
NOEVIR EMPLOYMENT SERVICE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헬퍼 1명, 주말 파타임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Tor,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 1–476–3109(Keswick) Mr, 신

주방에서 일하실분 1명 구함,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532–2727

룸 메이트 구함 (여자분 환영)
전화: 438–1528 Mrs, 김

2 Bed Rm, 아파트에 룸메이트 구함,
학생 또는 직장인 원함, 스카보로 지역, 월: $100
전화 : 266–6064 (오전중)

Dishwasher 구함,
오전 11:30~오후2:30, 월–금요일
전화: 421–6016, (오후 2시반 이후)

◉ 사 원 모 집 ◉
무역사원을 모집합니다.
* 자격여건 : 대학졸업자,
* 무역실무경험, 영어능통, 남·녀사원,
* Start 년봉 25,000불
Call : 677–4749, PENDRITH CO,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자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매 매

한국 전통의 고가구 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저녁7시부터 9시까지)
전화 : 248–6531 Mr, 김

Bakery–버라이어티 Plaza
Eglinton–HWY 427, $100,000다운, 완전장비갖춤,
9,000Sq, fit, 전화: 787–1626, 저녁781–3593

일본음식점 매매,(건강이 좋지 않아서) 좋은 바겐, 가격이 다시 내렸음, 좋은 장소, 좋은 리스, 46 Seats, 술 라이선스, Bar 카운터, 전화 : 221–1621, 826–7676 메니저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몬트리올에 위치한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000 권리금 : $40,000+스탁(Stock)
1주 6일 시간: 9a,m,~9p,m,

주소 : 8356 St,Laurent Blvd,, Montreal H2P 2N3
전화 : (514) 381–2108 Mr, 이재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건물 포함)
전화 : 547–0841(해밀톤) Mrs, 리

Dodge 밴트럭, 1981년 6기통, 27,000Km
아스킹 : $5,500
전화 : 622–2643

아케이드 머신 매매, 새 프로그램
값어치 있는 캐비넷, 라이선스 Board, 아스킹: $2,500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Thornhill, 아케이드 매매
좋은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썸머린 가게로도 적합등등,
전화 : 881–5336(오후 2시전), 773–2231(오후 4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 살림집 있음, 렌트: $625, 리스: 2년+2년
전화 : 465–4038 Mrs, Martin 아스킹 : $21,000+스탁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6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4430 Bathurst St.

해밀턴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5,000+스탁
3만5천 다운–물게지, 전화 : 1–388–4825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렌트 $500, 리스 1년반+5년옵션
아스킹 $70,000+스탁, 전화 : 781–8968(오전9시–12시)

그로서리가게 매매, $15,000, 다운타운 지역,
적은 렌트, 긴 리스, 매상오를 가능성이 많음,
Trust Well Realty Inc, 전화 : 596–8170 Mr, Tong

2층 아파트딸린 가게 매매 또는 매니저먼트요함,
전화 : 1–727–6665 (Aurora)

(1)주택 2 Bedroom Yonge/Lawrence $91,900
(2)주택 4 Bedroom Yonge/Eglinton $189,000
(3)주택 4 Bedroom Keele/Finch $179,000
(4)주택 2 Bedroom Eglinton/Marlee $67,900
(5)Store+3 Bedroom Queen/Parliament $169,000
(6)Store+3 Bedroom Queen/Leslie $99,900
(7)한국식품+그로서리 HWY 427/Rathburn $49,000
(8)Fish Chips Dufferin Mall $24,900
Canada Permanent Trus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가게나 빌딩을 파실려구요?
저희 매매난을 이용해 보세요,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Bloor 한인상가에 있는 가게를 세놓습니다.
전화 : 255–2161 Mr, 김

미시사가 3 Bed Rm, 디타치드 집,
Oak 나무로 층계 전부 되어 있고, 중앙식 에어 컨디션,
3 Baths, Family Rm, Laundry Rm,
Double Garage, 꼭 팔아야 함,
전화 : 279–5113 (영어로 문의 바람)

4 Bed Rm 하우스 렌트
스카보로 동쪽끝, 6월말에 입주 가능
전화 : 282–8066 Mr 리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지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승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본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사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문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타·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중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도산매 전문
-원로 중국 한의사 봉사. -보약재 할인판매
55 KENSINGTON AVE(쥬이시 시장내)(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회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미스KOREA선발대회

1983 MISS KOREA

6월하순 토론토에서 열리는 이민족제전 캐라반행사의 일환

83년4월23일·토 오후 6시

힐튼·하버캐슬 호텔

향수어린 정서 **장연화** 권순근악단 사회의 거장 **지미**

입장권이 매진 임박하고 있아오니, 한국일보사나 아래의 집행위원들로 부터 미리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당일 대회장소에서는 매표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본사 : 533－2361 ◎강공선 : 533－7923 ◎김원동 : 244－9073 ◎김진현 : 759－8349
◎윤방현 : 239－5255 ◎이대환 : 535－1251 ◎남지연 : 881－5590 ◎이장성 : 960－0074
◎홍기만 : 249－3694 ◎이광민 : 274－8889 ◎김현옥 : 967－0224

●입 장 료 : $30.00 (디너·쇼, 댄스포함)

◆협찬업체 〈접수순〉

1. 세방관광여행사(사장 유승민) :서울왕복항공권
2. E & J 오토바디(대표 이영두) :$500 약정
3. 영숙보석상(민영숙) :진주목걸이 1점($500)
4. 에코시스가구점(대표 김만구) :가구 1 Set
5. K.A.L.토론토지사(지사장 한석송)
6. Bayview Electronics(대표 김항섭) :소니 카셋라디오($200)
7. 무나미트로피사(사장 이기훈) :"진"용 금관
8. 미도파백화점(사장 장추신)
9. 블루어 안경점(사장 구진모) :고급 프랑스제 선글라스($150)
10. 새한칼라(사장 이인덕) :11×14 사진틀과 "진"독사진
11.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 이부현) :참가자 전원 상품 1점
12. 월드북 본사 :월드북 사전 1 Set ($100)
13. D.Y. 총판(사장 오기환) :가주미 25Lbs, 10포
14. 동부 아카데미 (사장 김정운) :20" PANASONIC TV 1 대
15. 신세계여행사(사장 김창범) :프로리다 왕복항공권
16. 블토아하드웨어(변의섭) :전자제품 2점
17. 한국관(나옥녀) :100불
18. 노스욕오토바디(송대헌) :100불
19. 앵코오토바디(송창섭) :100불
20. PICTURE FRAME(조성호) :액자(100불상당)
21. 남강식당(이영규) :DINNER FOR 4(100불상당)
22. 영·프라워숍(김순환) :참가자전원 꽃다발
23. 거북이선물센타(황순철) :상품1점(100불상당)
24. 한밭식품(임수철) :숙녀용가죽샌달구두(300불상당)
25. 이경태완인태권도장 :블랙·벨트(유단자급)까지의 무료수련권($870상당)
26. 황재필 :현금 $100
27. 동궁식당(최기주) :DINNER FOR 6(100불상당)
28. 김종조종합보험 :상품1점
29. 박종수도장(박종수) :3년 유단자코스및 체육기구일체포함
30. 로마노미용실(김조자) :화장품셋트(200불상당)
31. 캐나다한국외환은행(최승낙) :장미적금($1,200)
32. 왕운린 의사 :2년분 여성용 상비약
33. 무명씨 :$1,000찬조금
34. 권순근악단(권순근) :통키타($150상당)
35. 마야미용실(김영주) :MARYKAY화장품(1셋트 $100상당)
36. 토론토한인회(회장 장순채) :진, 선, 미, 인기상 트로피
37. 성균관대학교동창회(회장 권병구) :현금 $100
38. 배재동창회(회장 안창근) :현금 $200
39. 카나다한일은행토론토지점 :현금 $500
40. 조흥은행연락소 :현금 $300
41. 영구구독자 무명씨 :현금 $200
42. Mr. Mendel Green 이민변호사협회회장 :금일봉
43. Bloor & 케네디꽃집 :현금 $100
44. Mr. Gus Fallis, Fallis U-Save Cash & Carry :현금 $200
45. 현대자동차 토론토지사 :현금 $1,000
46. Frito Lay Ltd. :현금 $1,000
47. Silverwood Dairies, Div. of Silverwood Ind. Ltd. :현금 $700
48. Hostess Food Products Ltd. :현금 $500
49. Coca-Cola :(1)One year's supply of Coke Products, (2)현금 $1,500
50. 박광철 :포터블소형 TV($300상당)
51. Intercity News Co. :현금 $2,000
52. 곽정열 :ATARI VIDEO GAME($350상당)
53. Nabisco Brands Ltd. :초코렛및 Mint Candy
54. 상공인협회 :출전미녀 전원 수영복제공
55. 한국노년회(회장 조영호) :현금 $100

주최 : 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한인연합회, 토론토한인회, 영사관